JAN 19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한국일보 토론토

No. 1034 1983년 1월 19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Wednesday, January 19,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이철수 獄中殺人사건 原審파기

抗訴審합의부 死刑번복…다시 裁判토록 환송

완전無罪가능…곧 保釈길 열려

(LA지사)이철수씨의 옥중정당방위살인사건(제2사건)이 14일 캘리포니아주 항소 제3지구법정(새크라멘토 소재)에서 원심파기되어 원점으로 돌아갔다. 제2사건 원심파기결정은 제2사건을 미결수상태서 다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다. 이철수 변호단은 법원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밝히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새크라멘토 항소법원 결정은 지난 79년5월14일 스탁턴지법에서 파파스판사가 선고한 사형판결의 번복을 의미한다. 이철수 제1사건(차이나타운사건)도 다시 재판하여 무죄로 판결났었다.

새크라멘토 제3항소법원은 지난 81년 사형선고에 대한 항소심을 2년간 연기하면서 이철수씨의 제1사건재심을 기다려왔다.

이철수씨의 제2사건의 사형판결은 원래 제1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는 점에서 출발하여 내린 판결이었는데 지난해 9월3일 샌프란시스코 재심에서 무죄평결확정시 이미 제2사건도 번복되어야 한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해왔다.

한편 이철수후원회의 랑끄·야마다변호사는 이날 『새크라멘토항소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너무나 극적이다. 이철수씨의 무죄가 다시 증명됐다』고 기뻐했다.

새크라멘토항소법원 다이언서기도 제3지구 항소법원 합의부가 이철수 샌호킨카운티 1심사형선고판결을 번복시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법원의 원심파기결정에 대하여 랑끄·야마다변호사는 이철수변호인인 스튜어트·헨론변호사와 협의하여 보석신청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수씨는 지난 73년6월7일 차이나타운살인사건에 무고하게 체포되어 74년6월19일 1급살인범으로 종신징역선고로 듀엘교도소에서 복역중 77년10월8일 교도소내 갱두목 니드햄의 공격에서 살기위해 정당방위살인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억울한 케이스에 대하여 소수민족 인권차별이란 점에서 후원회가 조직되고 미주사상 한국계는 물론 일본계, 중국계의 캠페인으로 지난해 제1사건이 9년만에 무죄되고 이번 다시 제2사건이 항소심에 원심파기로 또한번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이번 판결은 3명의 합의부판사중 2대1의 판결로 원심무효판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수씨가 즉각 무죄석방될지 재심에 회부될지는 검찰측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 모든것에 관계없이 보석이 가능하며 현재 샌퀸티교도소에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이철수씨의 신병도 킨카운티경찰유치장으로 옮겨져 미결수로 있게 된다.

▲스탁턴듀엘 교도소옥중살인사건(제2사건)의 사형선고의 원심파기 결정을 받은 이철수씨.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전대통령 연두교서서 밝혀

"금년중 정치해금 첫단계조치"

(서울18일=연합)전두환대통령은 18일 연두교서에서 정부는 금년중에 정치활동이 금지된 인사들의 복권을 위한 첫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밝힌 새해 정책연설에서 전대통령은 80년도에 정치활동 금지처분을 받은 인사들에 대한 복권을 고려할 시기가 됐으므로 금년에 이를 위한 첫단계 조치를 취하고 단계적으로 정치활동 금지조치를 해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집계에 의하면 1988년까지 정치활동이 금지된 정치인은 모두 557명이다.

연두교서에서 전대통령은 이밖에 사상을 초월한 개방외교정책을 펼것을 밝히고, 국방·경제등 내정정책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도꾜·북경간 단축항로

한국 비행정보구역 통과

(서울15일=연합)남한의 항공정보구역(FIR)을 통과할 수 있는 동경·북경간의 새로운 단축항공노선이 한·일·중 3개국의 상호이해하에 개통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외무부에 의하면 이들 관련 3개국의 새 항로에 대한 합의는 싱가폴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의에서 아사드·코태이트 회장의 중재하에 이루어졌다.

새로운 항로가 개설되면 현존하는 동경-북경간의 항로보다 171마일이나 단축된다.

외무부관리는 새노선이 개설되면 북경을 향해 동경을 떠난 민간항공기는 한국최남단인 제주도 남쪽 한국상공을 통과하여 상해를 지나 북경에 도착하게 되며 북경에서 동경으로 향하는 루트도 역시 같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한국영공은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북경과 동경간의 민간항로 단축의 노력은 1980년 몬트리얼에 본부를 둔 ICAO가 남한, 일본, 중국, 북한간의 비공식 4자회담을 갖자고 제의한데서 비롯된다.

남북한의 정치상황을 고려한 ICAO는 그해 12월 관련 4개국이 동경과 북경간의 새로운 2개항로, 즉 일본항공기의 남한상공 통과노선과 중국항공기의 북한상공 통과노선을 신설할 것을 제의했다.

북한측은 새로운 항로개설을 위한 ICAO 제의를 "한반도의 영속적인 분단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즉각 거부했다.

모든 국가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을 중재키 위해 코테이트 ICAO회장이 작년 1월에 북경과 평양을 방문한데 뒤이어 서울과 동경도 방문했다.

외무부 관리는 국제민간항공기를 위해 한국상공을 개방한다는 정부측 입장에 따라 한국항공정보 구역을 통과하는 동경과 북경간의 항로단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중요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한국 항공정보지역(FIR)을 통과하는 동경과 북경간의 새로운 항공로 개설에 대해 환영했다.

트루도 귀국길에

아시아 7개국순방 끝내

(도꾜)트루도수상은 일본방문을 끝으로 아시아 7개국 순방을 끝내고 18일 귀국길에 올랐다.

17일 7개국 순방에 관한 마지막 기자회견을 끝낸 트루도수상은 30시간의 자유일정에 들어가 큰 아들 사샤(9)군과 함께 일본의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도꾜 서쪽 하코네로 향했다.

트루도수상과의 정상회담을 끝낸 나까소네 일본수상은 이날 미국방문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발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트루도수상은 자동차수입쿼타, 캔두원자로등 양국간의 현안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크라이슬러 윈저 스프링공장 폐쇄

(윈저)크라이슬러·캐나다 자동차회사는 오랜동안의 소문대로 윈저의 스프링공장을 닫는다고 공식발표했다.

크라이슬러측은 문을 닫게되는 결정적 이유는 경제적 타격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폐쇄시키는 7월중순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서 약 280명의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된다. 그러나 크라이슬러 대변인 윌트·맥콜씨는 이들의 대부분이 크라이슬러의 다른 플렌트로 흡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동차노동조합(UAW) 444지부는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윈저시청앞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스프링공장이 문을 닫게되면 그 결과 약 900명 이상이 일거리를 잃을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1964년이후 이 공장은 각종 스프링장비와 승용차와 트럭의 좌석스프링을 조립·제작해 오고 있다.

社 告

제2회 스키강습회

가족과 함께
스키를 즐깁시다

"스키를 하시면 겨울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라고들 말하지요. 사실입니다. 저희 한국일보사와 스키협회는 공동으로 작년에 이어 제2회 다운힐·스키(알파인·스키) 강습회를 가집니다. 스키강습겸 가족관광을 겸한 이 강습회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 때 : 83년 1월28일(금)출발, 30일저녁 귀가(2박3일)
◆ 곳 : 몽·트랑브랑(Mont Tremblant)
(몬트리얼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
◆회비 : 1인당 $219.00/14세미만 아동 $179.00
(왕복 대절버스편, 2박 호텔료, 아침·저녁 총 4회 식사, 환영파티, 스키·리프트 사용료, 안내원 동승, 스키지도 포함)

◆4인 1실 사용 원칙.
◆스키 렌트비는 별도.
◆선착순 40명
◆신청처: 한국일보사(533-2361)
브랜돈스포츠(598-3732)

토론토한국일보사
한인스키협회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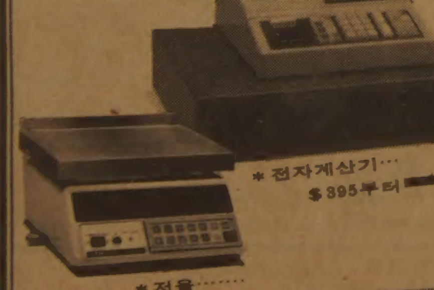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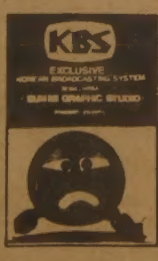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TEC
전자계산기
저울

＊전자계산기…
$395부터
＊저울……
$795부터
■계산기 종이(Paper Rolls)
특별쎄일 4800 per 100
＊모든 기계에 써비스합니다.
TECHNIC CASH
REGISTER LTD.
1368 Kennedy Rd.
☎: 757-9209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의 돈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선미광고는 KBS 독점으로
직수입 1,000개 돌파!!
보다 알찬 프로그램과 밝은 화면으로 교육, 종교 문화, 사극, 현대극, 영화, 문학, 가요, 희극, 비극을 준비했읍니다.

VIDEO TAPE
3/4 ○BETA ○VHS
방송지원… 시카고
뱅쿠바 칼가리 에드몬톤
무료봉사
토론토 한인노인회 매주 1회
협조사항
선미광고 협의없이 무단 복제 영업하는 자가 있는바 앞으로 단호한 의법조치할 것을 경고하며, 이런 업자를 신고하는 분께 300불을 드리겠읍니다.
미도파몰 3 FLOOR
454 BLOOR ST. W. TORONTO B.531-6430 R363-6523

BAUME & MERCIER
GENEVE
1830

73 countries over the 5 continents
International guarantee
ㅁ고급 금시계
ㅁ각종 보석및 반지

Ass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De Witt JEWELS LIMITED
3RD LEVEL Main Floor
979-9920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해외 결혼상담 창구

한국정부, 교포위해 금년중 설치

(서울17일=연합)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결혼을 주선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금년 상반기중에 결혼상담 창구를 국내와 해외의 정부기관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노동부 소식통은 17일 이같은 방침은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중에 적절한 배우자를 얻을 수 없는 자들을 돕기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이민이나 해외취업 등으로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로 배경이 다른 외국인과 결혼함으로써 발생하는 결혼상의 어려운 문제점이 때때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신청자는 한국영사관이나 해외의 한국인 친목단체등에 설치된 결혼상담 창구를 통해 상대방과 먼저 서신을 교환한후 서로 마음에 들면 휴가 또는 방학기간에 본국을 방문, 상대방을 만나게 된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외무부 통계에 따르면 82년말 현재 해외교포수는 98개국에 159만명에 달하며 가장 많은 지역은 일본으로 653,409명이다.

다음으로는 미국(280,752명), 캐나다(21,354명), 서독(11,356명), 사우디아라비아(9,037명), 브라질(8,236명), 스페인(6,03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의 경우 결혼적령기에 도달했거나 이미 지난 한국인의 수는 2,500명이나 된다.

해외에서 고용된 한인간호원의 수는 미국, 캐나다에 12,000을 비롯해서 서독에 1,400명, 사우디아라비아에 약 300명이 있으며 이들중 대부분이 고용계약을 연장, 나이 때문에 결혼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들 간호원들의 일부가 외국인과 결혼했으나 대부분 언어장애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후에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불토요학교 개교

첫날 30명학생 등록

등불토요학교가 15일 개교했다.

스카보로지역 교민자녀들을 위한 이 학교는 한글뿐 아니라 대학진학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어와 수학을 각각 1시간30분씩 가르친다.

첫날 등록생은 29명, 교장 김지현씨는 "생각했던 것 보다 학부형들의 호응이 컸다. 이들을 잘 지도해서 훌륭한 학생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사진은 김교장외에 방원정(한글: 토론토대학 대학원생), 이선규(수학: 토론토대학 대학원생), 베라・헬드(Vera Held・영어: 토론토대학)등 4명이다. 모두 이곳 대학을 졸업, 입학제도등을 비교적 잘 아는 이들은 토론토의 여러 한글학교에서 다년간 가르친 경력이 있다.

영어교사 헬드양은 요크대학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현재 토론토대학서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코스(TESL)를 택하고 있다.

스카보로 교육구청은 메트로・토론토지역 교육구청중 유일하게 이민자녀들을 위한 주말학교를 재정지원하지 않기때문에 등불학교는 주10달러씩의 수업료를 학생에게서 받는다.

수업은 미드랜드・애비뉴고교(Midland Avenue Collegiate Institute: 720 Midland Ave. Eglinton 남쪽)에서 매주 토요일 상오10시부터 하오3시까지 한다.(연락처 757-7828, 751-9475) 스카보로에는 이밖에 새별한글학교가 있다.

신춘문에 시상식

22일, 월례회겸해

캐나다한국문인협회(회장 박순배)의 제6회 신춘문예시상식이 오는 22일(토) 하오8시 1월월례회를 겸해 이석현 고문댁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유일한 입상자 김부미씨(수필부문 가작)도 멀리 뉴우・브룬스위크주 프레데릭톤으로부터 수상하러 온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제5계절

청춘극장

이장성(극단 "얼"대표)

옛날, 효창공원 한쪽구석에는 미군용텐트가 쳐 있었고 늘 그안 우동집 긴 의자에는 나란히 관객이 만원이었다. 찢어지는 확성기에서는 유행가 "신라의 달밤"이 공원 구석구석마다 메아리쳤다. 노래가 뚝 그치면 천막안에는 불이 꺼지고 상이군인 출신의 변사가 의자를 들고 무대에 나와 앉아 자신을 소개한다.

"이 사람의 호는 러키, 일인다역을 처리하는 스타로 말말이라고 부—른—다. 에헴, 자 기사! 필림을 돌려!" 드디어 흑백무성 화면이 스크린을 흔들며 돌아간다.

『오늘의 청춘극장. 용산로타리를 돌아 올라가면 미8군 담장옆 판자집에 삐이루라는 총각과 사이다라는 처녀가 결혼하여 보금자리를 틀은지 만일년, 때는 바야흐로 1953년 6.25동란이 끝난해 가을, 부슬비 내리는 통금 바로 직전이었다.

목이 기다란 삐이루가 방에 들어서자 거풀나는 목소리로 "야— 밥 차려와" 라고 소리치니, 아랫목에 앉아 새파래있던 사이다가 쨍하는 목소리로 "여기가 여관인줄 알아!" 아차, 삐이루가 따귀를 올리니, 사이다가 곧 응하는도다! "허허 이년이"하니 "야 이놈아"하여 또 하나의 전쟁이 폭발했던 거디이었다.

◆이장성씨

새째기 지나가듯 사이다의 머리엔 갑돌이와 손잡고 다정했던 시절이 획지나가고, 삐이루의 머리엔 갑순이와 따끈한 굴뚝에 기대여 입 맞추던 장면이 스쳐가는 거디이었다. 이리하여 후회와 원망에 분노한 삐이루가 부엌으로 달려가 그 마늘내 나는 식칼을 들고 사이다에게 서서히 다가가는 거디이었다.

"일어나! 빌어먹을 년, 죽여버릴테다"하고 칼을 내미니, 사이다가 만삭이된 배를 내밀며 "죽여, 죽여봐라!" 응하니, "그래 밥 달라는 남편한테 뭐라고!" "이것봐 셋방신세도 못 면하는 주제에 맥주라" "에이 병마개같은 년 말이 많어" "아 어서 죽여, 날 죽여라!"하며 천정이 찢어지라고 소리를 치니, 삐이루가 한걸음 물러서며 "못 죽일줄 아냐 이년아, 어느 쌍놈의 집에서 태여났기에 배꼽을 내밀고 대들어"하니 "이게 내 배냐 네 배지, 너는 어느 백정의 자식이기에 식칼을 들고…." "야! 이년이" "어서 죽여, 더 이상 지겨워 못살겠어, 어서"

보시라! 삐이루의 손이 와들와들 떨며 사이다의 부른 배를 바라보는 거디이였다. 보시라! 이 침묵을…. 드디어 사이다가 콧소리로 "싸나이가 칼을 뽑으면 결판을 내는 것이지 떨기는 왜 떨어!"하니 삐이루가 "이년아, 이년아 이게 이게 떠는거냐, 떠는거야, 흔드는 거지!"』

이때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며 환해지더니 변사의 말이 "이리하야 무승부, 삐이루와 사이다의 청춘극장이 막을 내리게 됐던 거디이었다. "신사숙녀여러분 잊으신 물건없이 안녕히 가시고 다음을 기대하시라!' 다시 천막안에는 백촉짜리 전등이 켜지고 "신라의 달밤"이 공원 저녁을 울리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해외지부

몬트리얼등 13개시에 설치

이태영女史 LA에…국제결혼・이혼등 상담

(LA지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이태영) 해외지부가 LA, 몬트리얼을 비롯한 미전국 13개도시에 설치된다.

여성문제를 비롯, 청소년상담, 가정문제해결, 무료변론등 많은 봉사활동으로 이미 한국내에서 대여성봉사기관으로 자리를 굳힌 가정법률상담소는 창립25주년(1981년)기념사업으로 해외지부를 설치케 된 것이다.

13개 대상도시중 시카고지역 상담소는 오는 15일 미주지부의 첫 개소식을 갖게되며, LA,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타코마, 샌프란시스코상담소는 현재 각 지역자원봉사자들이 구성한 준비위원회가 장소선정등의 작업을 마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문을 열 방침이다.

한편 미주지역중 교포수가 가장 많은 LA상담소에는 한국법률상담소 본부직원 1명이 직접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해외지부설치를 위해 지난 10일 LA에 도착한 이태영(69)소장에 따르면 해외상담소는 주로 ▲국제결혼에 따른 이혼 및 가정문제상담 ▲미국내 현지법률 무료 상담과 ▲「생명의 전화」운영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지부운영방법은 이미 선약을 받은 현지변호사들이 무료법률상담을 하며 각종교및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카운셀링을 하고 한국본부측은 상담책자발행등 측면보조지원을 하게된다.

가정법률상담소는 「1인1달러」 기부형식으로 조달될 상담소 운영자금 확보에 많은 교포가 호응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해외지부대상도시는 한국미8군의 자료협조를 받아 국제결혼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텍사스주 킬린, 애틀란타, 콜로라도 스프링스, 노스캐럴라이나주 페어트빌, 켄터키주 홉킨스빌과 캐나다 몬트리얼등13개 도시이다.

세계는 과연 파산 할 것인가?

18일 파리에서 금융전문가 회합

세계의 주요 금융계 인사들이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합을 갖는다.

모임의 목적은 50년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국제금융제도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수백억 달러의 파산 예방을 위한 묘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

캐나다를 포함한 10개 선진국가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만나는 이번 모임이 주선된 것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등의 개발도상국가들이 파산을 선고, 외채상환능력이 없다고 나자빠진 데서 기인한다.

이들 개발도상국가들이 지고 있는 총부채는 미화 6천억달러 정도, 순서로 따지면 브라질이 890억달러, 멕시코가 830억달러, 베네주엘라가 376억달러, 알헨티나가 370억달러이며 한국이 325억달러로 세계 제5위로 외채액이 많은 국가로 꼽힌다.

이들국가의 문제는 불황으로 금융시장의 이자율이 높아지자 당초의 계획대로 원금및 이자상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데 있다.

이로 인해 국제금융기관이 도산되고, 국제금융기관 도산은 세계 경제혼란은 물론 결국은 정치적인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지난 크리스마스 직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서독등의 재무장관들은 서독 프랑크・프루트에서 만나 IMF의 기본자금을 늘려 이들 도산위험국가들을 다소 숨을 돌리도록 하는 문제를 의논했다.

이 문제는 지난 여름 토론토에서 열린 IMF총회에서도 거론됐었으나 IMF에 가장 많은 기금을 내놓은 미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도 마음을 바꾼 듯 하다.

최근에 이르러 거의 20개국이 국제금융기관에 외채상환기간과 아울러 추가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세계적인 외채상환위기의 시초는 70년대 중반의 오일・쇼크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은행에 이어 가장 관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캐나다은행이다.

캐나다 은행의 자산중 약 40%, 즉 1,500억달러가 주로 차관형식으로 외국에 뿌려져 있고, 그중 65% 이상이 미국및 유럽등 선진국가로 나가있다.

스코시아은행의 경우 289억달러의 자산이 외국에 흩어져 있으며, 그중 51억달러는 중남미와 카리브해안에, 44억달러는 고소득개발도상국에, 6억달러는 그밖의 개발도상국에 투자되어 있다.

세계경제를 어둡게 보는 견해에는 두가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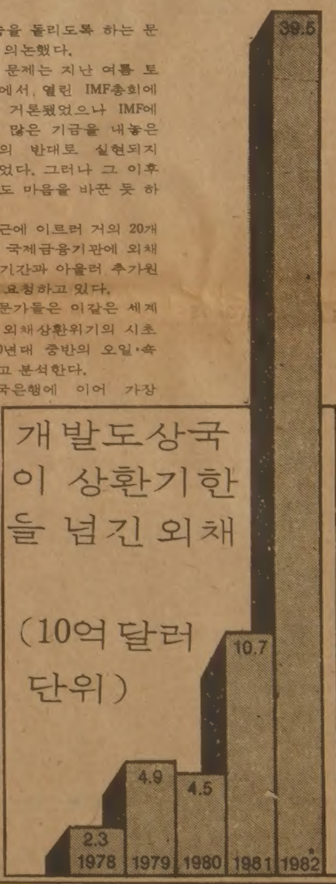
첫째는 일부 국가들이 폭탄처럼 터져 급작히 도산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세계의 은행들도 뒤따라 도산, 세계경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견해이고 두번째는 블랙・홀 이론, 즉 서서히 파먹어가는 것으로, 말하자면 개발도상국이 상환을 연기시킴으로써 은행제도가 서서히 붕괴된다는 견해이다.

이런 위기에 누구나 비관적인 견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국적 경제자문회사인 맥킨지 & 컴파니의 니콜라스・도이취씨는 "도대체 누가 그와같은 사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그전 마치 핵전쟁과 같다. 한번 터지면 인류전체가 멸망한다. 그러므로 IMF(국제통화기금) 혹은 각국 정부가 사전개입, 사태를 조정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로열뱅크의 국제금융전문가 루트르・폰・멜・헤이전씨 역시 그다지 비관적이 아니다.

그는 "도산위기의 개발도상국들이 처한 난관은 부채액 때문이 아니라 높은 이자율로 일시적으로 현금유통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77년도에 이자율이 7%하던 때와 81년도의 이자율 15%와는 투자계획상 차질이 안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



……외채가 많은 국가들……

브라질	890억(미화)
멕시코	830억
베네주엘라	376억
아르헨티나	370억
※한 국	325억
폴랜드	240억
유고슬라비아	180억
루마니아	100억

미스 버뮤다

마약 밀반입 3년형

(런던)작년도 미스・월드 경연대회의 버뮤다 대표였던 헤더・로스양이 암스텔담으로부터 영국에 마약을 밀반입한 죄로 기소되어 3년형에 처해졌다.

22세인 로스양은 시가 32만불 상당의 2.2파운드의 코카인을 특별히 만든 짐가방속에 넣어 헤드로우공항을 들어오다 적발되었다.

작년도의 경연대회에서 입상권에 들지 못한 로스양은 이날 법정에서 자신이 국제마약밀매단의 운반책 임을 시인했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신 第5의 사나이 <151>

거물급政治人의 딸 피살에 日경찰은…

흔적 ②

도오쿄경시청은 거물급 정치인모리무라・쇼오자이(森村政材)의 딸이 살해된 시체로 발견된만큼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문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수사기관도 언론 기관도 모두 흥분할만큼 충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었다.

즉시 내노라하는 살인전담 형사들이 달라붙어 수사를 벌였지만 처음부터 그들은 벽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다. 범인은 단서가 될만한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아물론 방안에 남아있는 지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채취되었다. 피살자의 행적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다.

시체는 정밀하게 검시되었다. 여자와 함께 투숙했던 남자에 대한 몽타지도 작성되었다. 그 반백의 머리를 가진 50대의 사나이를 경찰은 진범으로 보고 있었다. 그들을 방으로 안내했던 호텔종업원은 비교적 자세하게 그 남자의 인상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의 수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가 있었다. 수사 지휘를 맡은 사나이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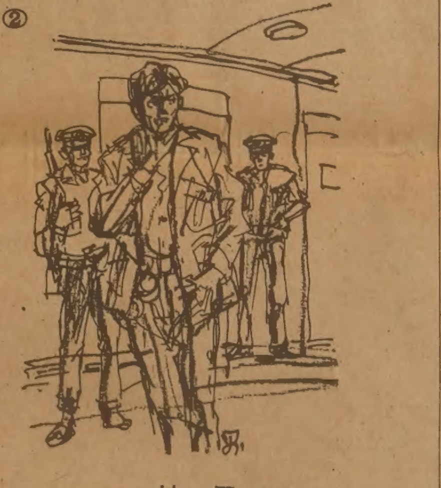
『주목을 끌만한 지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범인은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던가 아니면 범행후에 지문은 모두 지웠을거야. 나는 후자의 경우에 기대를 걸고있는데…이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지문을 완전히 지운다는건 어렵지. 그래서 채취된 지문 가운데 범인의 것이 하나쯤 있을 것으로보고 기대를걸고있어. 늦어도 내일쯤에는 모든 지문에 대한 조사가 끝날거야. 다음은 피살자의 행적에 대해서는…그녀는 오늘 새벽 3시30분에 나리따 공항에 도착했어. 홍콩에서 오는길이었지. 패스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행적을 조사하는건 아주 쉬웠어. 호텔에 도착한 것은 5시10분전. 그녀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고 남자와 동행이었어. 남자도 홍콩에서 오는 길이었어. 숙박카드에 기록된 이름과 탑승자 이름이 일치했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지. 그는 여자와 나란히 앉아 왔어. 그들이 비행기에서 우연히 알게되었는지 그전부터 아는 사이였는지 그것은 알수가 없어.』

지휘자는 몽타지를 들어보이며 그것을 손가락으로 탁탁 퉁겼다.

『이 문제의 인물…이 몽타지를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여기에 매달릴 수 밖에 없어. 이 몽타지를 들고 사람을 찾아다닐 수 밖에 없어.』

『헌데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쩐지 이게 변장한 얼굴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변장의 전형적인얼굴 같지 않습니까? 안경에 콧수염, 그리고 머리는 염색했을테고….』

『내 생각도 그래. 허지만 확신할 수가 없단 말이야. 변장했을 가능성으로 범인이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 시체를 검사한 결과 범인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여자를 죽인게 밝혀졌어. 아주 대단한 솜씨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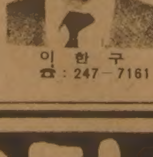
朴 男 그림

교 민 동 정

◆장추신(미도파백화점 경영)=몸담고 있는 한맘성당의 야외행사, 순례관광등 단체이동에 16인승 밴트럭을 무한정 무료대여하기로 했다.

소그룹 관광・환자 단체방문・야외미사・특히 노인들의 사용을 환영한다고.

◆최규식(신부・토론토한인천주교회 주임)=오는 24일~28일(4박5일간) 보스톤한인성당이 주최하는 성령세미나에 소속교우 약30명과 함께 참가, 미도파 제공밴트럭도 이용할 예정이다.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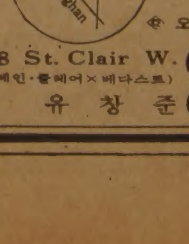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서울대학교 동창회
신년파티
서울대 동문 여러분께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찬 나날을 보내시는 우리 서울대인의 신년파티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사귀임과 흥겨운 하루 저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ㅁ서울대학교 동창회 '83신년파티
ㅁ 때 : 1983년 1월29일(토) 오후 6 시30분
ㅁ 곳 : Triumph Sheraton Hotel, Canada Room (Hwy 401 & Keele St.)
ㅁ회비 : $25.00
서울대학교 동창회

'83-84년도
토론토
한인업소전화부가
곧 발행됩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업주 교회, 각 학교동창회, 은행, 각종단체 (영리・비영리) 의사등은 광고국으로 연락 바라겠읍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한인업소 전화부(책자) 발간에 한분도 빠짐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토론토한국일보사
광고국장 송 광 호
☎ : 533-2363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오후3시부터
・북경식요리
・소고기철판구이
・각종홍콩식요리
529 BLOOR ST. W. TOR.
533-3545-6

한국인이 경영하는 미홍콩 스타일 전문
Rose Garden
중국 식당

"단체손님 환영"
■Free 주차
■각종 술 full-licence 취득
■주문시 배달합니다.
■매일(년중무휴)
오전 11:30~새벽 1:00까지
538 St. Clair W.
(세인・클레어×배다스트)
유 창 준
656-0456
654-6609

몬트리얼 자동차 쇼
83년모델 선 보여

(몬트리얼)지난 14일부터 몬트리얼에서 개최된 캐나다의 금년도 첫 자동차 쇼에서 크라이슬러, 포드와 3개 일본자동차 메이커들은 GM을 겨냥, 83년도형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크라이슬러는 K-Car 모델중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뉴요커(New Yorker)를 내놓았다. 가격은 $12,990에서 시작한다.

크라이슬러의 회장 아이코카는 지난주 뉴욕에서 실시된 신형모델 시사회에서 뉴요커는 "미래의 호화차"라고 말했다.

또한 포드도 새로운 모델로 도전하고 있다.

포드는 83년도형으로 던더버드(Thurderbird)와 쿠우거(Cougar) 2종을 내놓았다.

포드·캐나다의 케네스·해리겐사장은 이들 새로운 모델은 GM의 올스모빌·크브르스·스프릴과 빅·리갈 등과 경쟁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기본가격은 $11,000에서 시작한다.

일본차들은 도요다, 마즈다, 혼다회사의 경쟁으로 도요다의 캄리(Camry)와 마즈다의 626형, 혼다의 프레류드(Prelude)가 도전에 나섰다.

일본차들의 가격은 $10,000~$13,800선이다.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블루제이스 야구단
선수3명 추가 계약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3명의 선수와 추가로 계약 서명했다.

구단측은 지난 11월 알·우드스 대신에 오클랜드 에이스(A's)에서 온 강타자 클라프·존슨및 3루수인 가드·이오그와 각각 2년계약을 그리고 외야수인 로이드·모스버와 1년 계약을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들과의 계약조건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로써 지금까지 블루제이스와 계약에 서명한 선수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아직 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주요선수로는 데이브·스티이브, 대마소·가르시아, 알프레드·그리핀, 그리고 짐·클랜등이다. 하지만 구단측은 이들과 모두 계약에 서명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우리는 3월에 그들과 싸인, 개회날에 구장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섭외감독인 하워드·스타크맨이 말했다.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금융회사및 은행이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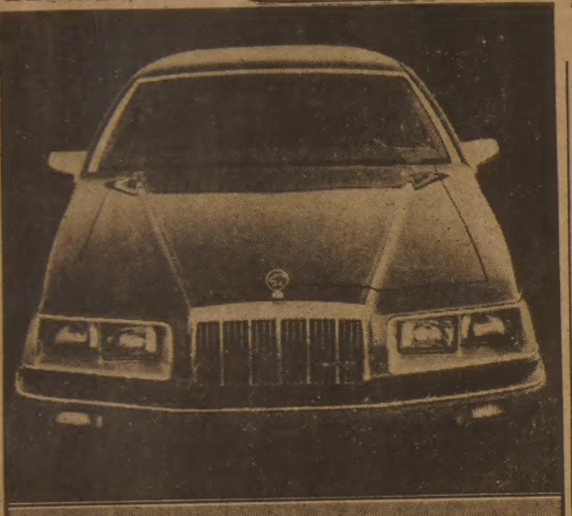
아래 이자율표는 1월14일자 이며 예고없이 변동될 수도 있다.

TRUST COMPANIES	TERM DEPOSITS Minimum Deposit	30-59 DAYS	60-89 DAYS	90-119 DAYS	CERTIFICATES/ INTEREST PAID ANNUALLY Minimum Deposit	1 YR.	2 YRS.	3 YRS.
Canada Permanent	5,000	8¾	8¾	8¾	1,000	10½	10½	11
Canada Trust	5,000	8½	8½	8½	1,000	10	10½	10½
Continental Trust	10,000	10	10	10	2,000	10¾	11	12¼
Counsel Trust	10,000	—	10	10	1,000	11½	12	12¾
Eaton/Bay Trust	5,000	—	—	9	500	10¾	11½	12¼
First City Trust	5,000	9	8¾	8½	500	10¼	11¼	12¼
Guaranty Trust	5,000	8½	8½	8½	1,000	10¾	11¼	11¼
Montreal Trust	5,000	8¾	8¾	8¾	1,000	10¾	10½	10½
National Trust	5,000	8¾	8¾	8¾	1,000	10½	11¼	11¼
Royal Trust	5,000	8¾	8¾	8¾	1,000	10¼	10½	10¾
Vanguard Trust	5,000	10¼	10¼	10¼	1,000	11¾	12¾	12½
Victoria & Grey Trust	5,000	8½	8½	8½	500	10½	10¾	11

CHARTERED BANKS	TERM DEPOSITS Minimum Deposit	30-59 DAYS	60-89 DAYS	90-119 DAYS	CERTIFICATES OR TERM DEPOSITS INTEREST PAID SEMI-ANNUALLY Minimum Deposit	1 YR.	2 YRS.	3 YRS.
Can. Com. Bank	5,000	8¾	8¾	8¾	5,000	—	—	—
C.I.B.C.	5,000	8½	8½	8½	1,000	8¾	8¾	8¾
Continental Bank	5,000	8¾	8¾	8¾	1,000	9	9	9
Mercantile Bank	5,000	9½	9¼	9	5,000	9½	10	10
Bank Of Montreal	5,000	8	8	8	1,000	8½	8½	8½
National Bank	5,000	8¼	8½	8½	1,000	9	9	9½
Bank of Nova Scotia	5,000	8¼	8¼	8¼	1,000	9¼	9¼	9¼
Royal Bank	5,000	8½	8½	8½	1,000	8¾	8¾	8¾
Toronto Dominion	5,000	8¼	8¼	8½	1,000	8¾	8¾	8¾

MORTGAGE LOAN COMPANIES	DEBENTURES INTEREST PAID ANNUALLY Minimum Deposit	1 YR.	2 YRS.	3 YRS.
T-D Bank Mtge.	1,000	9¼	9½	9¾
C.I.B.C. Mtge.	1,000	9¾	10¼	10¼
Standard Loan	500	10½	10¾	11
Termguard Sav. & Loans	1,000	12½	12¾	12¾
Morguard Home Mtge.	1,000	10½	11	11¾

All rat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Ford's Cougar: Approximate price $11,000

Toyota Camry: Approximate price $11,000

Mazda 626: Likely price range $9,845 to $13,800

Chrysler New Yorker: Approximate price $12,996

Honda Prelude: Approximate price $10,000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적은 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전 세계로 배달하는
Lotus Florist and Gifts

□ 고급 품질의 Plant 취급.
□ 웨딩전문.
□ 각국, 각처에 주문 배달함.

◎메트로 전역 : 1일 2회.
◎영국및 유럽 : 3일전
◎한국및 기타 : 1주일전
◎카나다및 미국 : 주문당일 배달

792 Bathurst St.
Bathurst & Bloor Toronto M5R 3G1
533-3884 Sue Kim 533-0705
(R)749-8399

UNPAINTED FURNITURE
"믿을수 없는 가격"
한번 들려주세요.!!
FOR SALE
CONTENTS OF FACTORY

DRESSER $88.00
NIGHT TABLE $29.95
36" x 72" $98.00
BOOKCASE 36" x 36" $29.95
DESK $69.95
MANY OTHER ITEMS AT SIMILAR SAVINGS
BUNK BEDS $99.95
MATTRESSES TWIN DOUBLE $49.95

◈페인트칠 없는 나무 그대로의 원제품 가구.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 레스토랑, 사무실등에 각종 비품 대량공급.

NORTH PARK DISTRIBUTORS
3368 YONGE ST. 488-7911
(7 Blocks North of Lawrence)

목사님 청빙

본교회는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복음신앙에 굳게 선 교우들이 모여 아름다운 소망중 청실히 성장해 가고 있읍니다.

오셔서 굳센 소명감을 갖고 목회하실 뜻을 가지신 분은 아래와같이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격 : ① 정규 신학과정을 마치고 교단을 통해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
② 가능한대로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

대 우 : 목회의 내용에 따라 교회의 결정 예산에 준함.

구비서류 : 이력서와 사진1매를 83년 2월말까지 제출.

연 락 처 : Korean Toronto Church (In St. John's United Church) 2 Mobert Rd, Agincourt, Ont. M1T 1C1
Phone: 416-494-5007
416-226-9794

한인토론토교회
교역자청빙위원회

한국일보

"金利 現水準 유지를"

民正、黨政간담회서 促求 經濟운용수정안 절충

"通貨급격 縮少 피해야"
新品種추곡 收買 요청

정부와 民正黨은 14일하오 경제관계 黨政간담회의를 열고 정부의 83년도 경제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한 의견절충을 계속했다.

이자리에서 民正黨은 물가가 안정됨에따라 實質的인면에서는 金利인하가 가능할지 모르나 당분간 현수준의 金利를 고수하면서 경제기반을 굳게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金利를 더이상 인하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民正黨은 또 年末에 18~20%로 총통화량을 늘리는것은 작년말의 28%선에 비해 많이 내려간것이나 통화공급량을 한꺼번에 늘리지말고 점진적으로 늘려 통화의 급격한 축소가 없도록 적절한 통화정책을 사용할것도 정부측에 아울러 요구했다.

그러나 民正黨은 13일의 고위정책간담회에서와는 달리 정부가 수정안으로 제시한▲금년도 경제성장률 7.5%▲물가상승률 2~2.5%(도매물가기준) ▲수출목표액 2백35억달러·수입액 2백55억달러▲국내제조업성장률 8%, 국내총수산성장률 4%는 세계의경제不況에 비춰 다소 의욕적인 감은 있으나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의 海외요인이 점차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키로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후 陳懿鍾정책위의장은 『原油및원자재의 가격안정등 예상보다 해외요인이 안정되고 작년말의 도매물가가 2.4%만 인상된 점을 감안할때 정부가 새로이 修正하여 제시한 2~2.5%(당초試案5%)의 물가상승률과 7.5%의 경제성장률은 수긍할수 있는 數値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따라서 GNP성장률과 관계가있는 수출목표액 2백35억달러는 납득할수있는 수치라고 오늘의 黨政간담회에서 의견을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陳의장은 이와함께『경상적인 경제성장이 회어들고있어 이론상 稅收부족이 예상되지만 물가하락에따른 지출의輕減이 있을것이며 또다른 稅源의발굴로 예산收支나 균형을 이룰수있다는 정부의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民正黨은 新品種추곡의 추가수매를 요청했는데 정부측은 이에대해 『현재 추가수매중인 58만석의 수매실적을보아가며 다시 논의하자』고 말해 난색을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民正黨은 13일의 고위정책간담회에서는 정부의「83년도경제운용계획修正案」에대해 異議를 제기하면서 再修正을 요구했었다.

이날 회의에는 民正黨측에서 陳懿鍾정책의장을 비롯한 高貴男정책실무실장등 경제정책팀이, 정부측에서 鄭寅用경제기획원차관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政府기구 改編 불가피

機能분석결과 1개行政조정관 감축등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정부기능분석작업결과에 따라 정부기구의 일부를 조정, 개편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한관계자는14일『기능분석작업이 아직 결론을낼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처리방향에는 기구의 일부조정이 불가피하게 포함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81년 정부의 대규모 축소개편에 이어 착수된 이 기능분석작업에 대해 당시 정부고위관계자는『기능분석작업결과가 部處수준의 대규모조정에 까지는 이르지않을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최근들어 다른 고위관계자는『기능분석작업결과 정부기구조정을 어떤단계와 절차를거쳐 어떤범위내에서 실시하느냐에 대해 검토해야겠지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결정돼야할사항』이라고 말해 상당한 수준의 개편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정부의 기구조정으로 인한 지나친 충격을 피해야 한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기능분석작업을 진행중인 총무처는 1만여개의 정부기능을 정부가 맡아해야할일의 종류를 가려내는 靜態분석작업을 끝내고 올들어서는▲業務量▲人力▲기관의기능수행적합성 ▲예산등을 파악하는 動態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또 금년도예산중 2천억원대에 이르는 예산액을 節減하는 실행예산편성작업에착수, 기능분석작업결과와의 연계성을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리실은 산하행정조정실의 4개행정조정관중 1개행정조정관을 감축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금까지 체육부에서 맡아온 행정각部處의 올림픽支援업무조정을 행정조정실이 맡도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외무부산하의對外協力彎신설계획을 바꿔 부총리산하에 규모를축소시킨 행정기관성격의 대외협력위원회를 신설, 차관급으로 사무국장을 補할방침이다.

創黨2돌 기념식 民正, 오늘10시에

民正黨은 15일상오10시 서울江南區 可樂洞 黨중앙정치연수원에서 당직자 소속의원 당원등 1천5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創黨2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獨立기념관 誠金 3백53億6천만원

재단법인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安椿生)는 13일현재 각계각층으로부터 들어온 성금의 총액이 3백53억6천4백64만 2천3백21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연말마감한 전국신문방송을 통한 성금모금액은 3백53억3천2백89만4천5백20원으로 집계됐고 올들어 13일현재 추진위원회사무처에 기탁해온 성금은 3천1백74만7천8백1원이라고 밝혔다.

2차中·蘇예비회담 3월初 모스크바서

【北京AP=聯】 中共과 蘇聯은 긴장된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3월초 모스크바에서 제2차 中·蘇예비회담을가질것이라고 中共외무성의 한대변인이 14일 발표했다.

이대변은 제2차中·蘇예비회담이 「3월초 시작될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분명한날짜는 아직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10월 北京에서 제1차예비회담을갖고 제2차회담은 모스크바에서 열기로 합의한바있는데 中共은 특히 양국간의 이회담을 공식적인 관계정상화회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비회담이라는 명칭을 붙여왔다.

구독신청·광고 533-2361

社会漫評

계속 神主모시듯 하기로…

政界 대폭改編 따를듯

各黨 全黨大會 개최일자 대체로 매듭

民正 3월20일, 民韓 2월8~9일께, 국민 2월3일

民正·民韓·국민당등 주요정당의 全黨대회日程이 대체로 결정됨에따라 政局은 한결 부산해지고있으며 전당대회가 끝나는 내달중순께부터 시작하여 오는4월初께는 政界전반에걸친 대폭적인 개편이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지난7일 會同한 民正·民韓·국민당의 대표들도 전당대회가 끝나는대로 再會同, 自制,국회법개정문제를 포함한 주요정치현안들을 본격적으로 협의할것으로보인다.

民正黨은 오는 3월20일을 전후하여 全黨대회를 열기로하고 대회날짜를 17·22·25일중에서 擇日키로했는데 그중에서 25일이 가장 有力한것으로 알려졌다.

民正黨은 전당대회에서 黨사무처가 마련한 黨憲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政綱政策일부도 修正할 예정이다.

民正黨은 이에앞서 오는20일부터 2월15일사이에 92개지구당개편대회를 모두 마치고이어 市·道지부대회까지끝낼방침이다.

民韓黨은 전당대회를 당초예정보다앞당겨 오는2월8·9兩日間 서울 世宗문화회관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14일 현재 전국74개지구당중37개지구의 改編대회를 끝낸는데 나머지 지구도 이달말까지 마무리 지을예정이다.

특히 전당대회 개최일자가 잡혀짐에따라 黨權派와 非黨權派의 攻防도 한층加熱될전망인데 來週末쯤이면 黨權도전세력의 향방도 표면화될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黨內一角에서는 원만한 大會를위해 黨·非黨權派의 대화를 모색하고있는데 특별한 도전세력이없는한 柳致松총재의 單一후보는 거의 확정적이다.

국민당은 14일상오에 열린 全黨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정기全黨대회를 오는 2월3일 상오10시 서울世宗 문화회관 별관에서 개최키로 잠정결정했다.

이에앞서 국민당은 未創黨지구당과 有故지구당을 제외한 60여개 지구당개편대회를 이달말까지 끝낼방침이다.

李外務、泰·印방문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李範錫외무장관내외는 시티泰國외상및 라오印度외상의 초청으로 오는20일부터22일까지 泰國을, 22일부터 25일까지 印度를 각각 방문한다.

李장관은 泰國방문중 푸미폰國王과 프렘수상을 예방하며 시티외상과도 회담을갖고 양국의 상호관심사를 협의할 예정이다.

李장관은 또 印度방문중에는 싱대통령과 간디수상을예방한후 라오외상과만나 한반도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것으로알려졌다.

崔侊洙 사우디大使 金총리, 임명장수여

金相浹국무총리는 14일 崔侊洙신임 駐사우디대사에게 임명장을수여하고이어 칼로우돔리티룻신임駐韓泰國대사와 에두아르도·곤·산촌 신임駐韓코스타리카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全斗煥 대통령이 國政자문위원들과 오찬을 갖기에 앞서 이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누고있다.

"韓·日문제해결 큰成果"

全대통령、國政자문위원들과 오찬서 밝혀

全斗煥대통령은 14일낮 청와대 대접견실에서 國政자문회의의 崔圭夏의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22명과 오찬을함께하며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나까소네 (中曽根康弘) 일본수상의 訪韓성과를 설명 『나까소네수상의 訪韓은 우리로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앞으로 韓日두나라는 이를 바탕으로 참다운 의미에서 友誼를 돈독히해 양국간의 새로운 협력의 새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그동안 韓日관계는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적 배경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경직돼온것이 사실이었으므로 경제협력문제를 비롯해 두나라 사이의 현안들이 이렇게 쉽게 빨리 해결될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히고『韓日간의 문제들이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해결된데는 우리국민들의 성원과 나까소네수상의 결단이 많은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자리에는 金相浹국무총리와 金竣成부총리가 배석했다.

國政자문회의는 이에앞서 이날 상오 서울 三清洞회의실에서 제20차회의를 열고 경제기획원측으로부터 금년도 경제정책의 운용방향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美에 武器技術 日서 提供결정

【東京=宋孝彬특파원】 일본정부는 14일 각의에서 미국에 무기기술을 공여키로 의결했다.

고또다(後藤田)관방장관은 이날 담화를통해 미국에의무기기술공여는 일본이정한 무기수출금지 3원칙에 저촉되지 않으며 미·일상호방위원조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기기술 공여문제는 72년6월 일본의 오오무라(大村)前방위청장관이 訪美했을때 미국측이 요청한 문제로 미·일 현안문제의 하나였는데 나까소네수상의 17일 訪美에 앞서 이문제를 타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늘없는 表情 최우수신인 申貞順㊥ 장려신인 魯宣炅㊧·成貞炅선수가 상장과 상패를 들고 환한 표정을 짓고있다.

"世界향해 힘차게 뻗길"

제20회 한국新人體育賞 시상

어제 本社서 李체육장관등 참석

제20회 한국신인체육상 시상식이 14일하오2시 한국일보사 13층 紅室에서 李源京체육부장관 金鍾圭대한체육회부회장 金鍾烈심사위원장(대한체육회고문) 金晟樂泰陵선수촌장등 많은 체육계인사와 가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풀어졌다.

한국일보社와 日刊스포츠가 한국스포츠 미래의 주역을 발굴, 격려하기위해마련한 한국신인 체육상 시상식에서 洪惟善 한국일보 발행인은 최우수 신인으로 선정된 양궁의 申貞順(17·光州女高2년)과 남녀장려신인 魯貞宣(18·住宅公社·테니스)、여자 장려신인 成貞貝(17·三千浦女商1년·농구)에게 각각 상장과 상패를 수여했다。수상자들에게는 각각대형벽시계와 구두 1족씩、魯貝宣에게 신사복1벌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이날 李源京체육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 신인 체육상이 20회를 거듭하는 동안 많은 우수선수들을 배출, 한국체육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고 말하고『수상자여러분은 오늘의 영예에 만족하지말고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LA五輪 北韓"참가"

會議위해 美에 온 IOC委員밝혀

【로스앤젤레스=李台永특파원】 北韓이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NOC (국가올림픽위원회) 총회에 참석하기위해 13일 (이하한국시간)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北韓의 IOC위원 金유순은 北韓이 84년 LA올림픽에 참가할계획임을 밝히고 선수단규모등 구체적인 계획에대해서는 언급하지않았다. 北韓이 LA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한경우72년뮌헨올림픽, 76년몬트리올올림픽에이어세번째로올림픽에北대결을벌이게된다.

LA IOC總會에 北傀대표 參席허락 美국무성

【워싱턴=李文熙특파원】美국무성당국자는 13일상오 1월중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참석하는 북한대표단에게는 외교관계유무에 관계없이 회의에 참석할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地平線

그의 키는 1m10㎝。코와 입은 원숭이의 것과 닮았다。파충류의 긴 목에다 갈은 피부형태를 갖추고 있어 자라머리를 확대해 놓은것처럼 보인다。머리는 앞뒤와 옆으로 발달되었고 다리는 退化되어 있다。그의 직업은 식물학자다。그가 오늘날 온地球人의 관심을 한몸에 모아가고있는 ET(外界人)다。EXTRA-TERRESTRIAL의 略字다。▼이 작달막하고 흉물스럽게도 보이는 外界人이 과학공상영화 ET의 주인공이다。그外界人은 어느날 동료들과함께 地球를 탐색하려고 비행접시를 타고 미국캘리포니아州의 한 조용한 작은마을에 착륙한다。비행접시가地球人들에게 발각되자 엉겁결에 한사람의 外界人을 남겨두고 별나라로 사라져 버린다。이外界人은 그마을에 사는 엘리어트소년의 벽장에 숨겨져 보호를받는다。▼재빨리 영어를 터득하는 그外界人은 엘리어트와 情을나누게 된다。벗이 된다。하지만 그가 살던 外界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超能力을 가진 外界人은 엘리어트의 낡은 장난감과 電子놀이器機를 조작하여 3백만光年이나 멀리 떨어진 고향 별과 통신을 할수 있게 된다。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엘리어트와 헤어져 外界로 돌아가는 장면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만다。▼영화 ET는 작년6월 미국서 상영된 이래 단연 선풍적 인기를 끌어 2천3백25억원의 엄청난 입장료수입을 올렸다。ET소설은 3백만부나 팔렸다。다른 서방선진국서도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 한다。黃金상자가 되고있는 ET는 우리나라와도 상당한 인연을 맺고 있다。어린이완구를 미국에 대량 수출하는 한국과 대만은 ET를 닮은 인형을 만들어 내보냈다。작년 크리스머스때 이 ET인형은 미국 백화점에서 불티난듯이 팔렸다는게 美시사주간지 타임의 보도다。外界人과 엘리어트소년과의 情이 얼마나 아름답고 두터웠는가를 말해준다。▼영화 ET가 미국과 서방선진국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것은 대체로 두가지 이유때문인것같다。선진국들이 현실적으로 컴퓨터 時代를 생활화하면서 스타 전쟁등 TV과학공상영화가 어린이나 어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있어 外界人이 그들에게 생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다른하나는 순수성을 잃은 어른들이나 잃어가고있는 소년소녀들에게 外界人의 原始人的 순수성、충성심、타산을 초월한 情이 地球人의 공감을 산것 같다。▼우리나라 人口구조도 先進國化되어간다고 한다。선진국처럼 機械化、都市化때문에 固有의 포근한 人情도 退化되어 간다는 뜻도 된다。조만간 ET가 이땅에도 오게되겠지만、인기를 모을소지는 우리에게도있을듯하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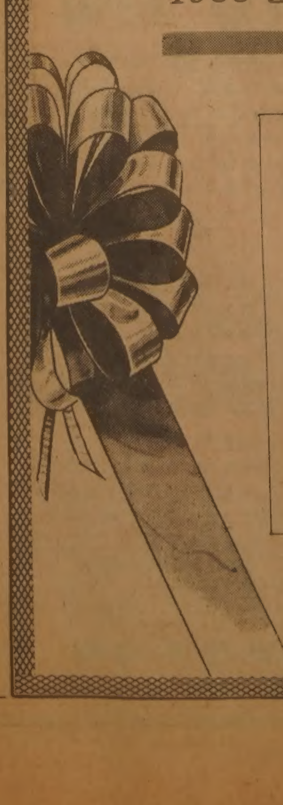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HERALD TRAVEL SERVICE
1983년도 천우여행사 인류고대문명 요람지 탐방 여행안내



에집트·이스라엘·희랍

출 발 : 1983년 4월 15일(금)
귀 환 : 5월 7일(토)
기 간 : 23일 21박
방문지 : 에집트8박, 이스라엘7박, 희랍5박, 빠리 1박
요 금 : $3,600
◉왕복항공료및 지상교통비
◉관광및 입장료
◉숙박 1급호텔(1실2인)
◉식사(대륙식 아침, 저녁—빠리는 아침만)
◉호텔 세금및 팁
신 청 : 등록 — 1983. 2. 28 $500 불입
마감 — 1983. 3. 15 잔액

남 미

출 발 : 1983년 5월 14일(토)
귀 환 : 5월 29일(일)
기 간 : 16일 14박
방문지 : 부라질5박, 알젠틴2박, 칠레2박, 페루5박
요 금 : $2,900
◉왕복항공료및 지상교통비
◉관광
◉숙박 1급호텔(1실2인)
◉식사: 부라질—부라질식, 아취/페루—쿠즈코에서 3식
◉호텔세금및 팁
신 청 : 등록 — 1983. 4. 1 $500 불입
마감 — 1983. 4. 15

중 국

출 발 : 1983년 7월 10일
기 간 : 17일 15박
방문지 : 홍콩1박, 광주1박, 항주2박, 상해3박, 봉천2박, 기차1박, 할빈2박, 북경3박.
요 금 : $3,600
◉왕복항공료및 지상 교통비
◉관광
◉숙박1급호텔(1실2인)
◉식사1일3식(홍콩제외)
신 청 : 등록 — 1983. 4. 29 $500
마감 — 1983. 5. 31

*상기요금은 토론토를 기준으로 함.
*요금은 변동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문의 요망은
HERALD TRAVEL SERVICE
Tel : (416)366—1188 (R) (416)651—8081
SHERATON HOTEL(지하상가)
123 Queen St. W. Toronto M5H 3M9(시청앞)

다른 도시에서도 합류 가능하며, 미국내 교포참여 환영

84회 생일날 辭任선언한 比 로물로外相

◇辭任밝힌 로물로比外相(上)과 후임說이 끈질기게 나도는 이멜다女史。

카를로스·로물로 필리핀 외상이 14일 외상직 사임서를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와함께 이날로 84회 생일을 맞은 로물로외상은 「생일만찬연설에서 자신의 사임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게 될것이라」고 게오르게·레이에스외무성대변인이 전했다.

지난59년 퀴리노정권때 잠시 외상을 지냈다가 10년뒤인 69년 현마르코스 대통령에의해 외상자리에 컴백, 14년동안 재직한 로물로씨는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長壽外相. 맥아더장군의 보좌관으로 2차대전에 참전했던 그는 유엔창설멤버의 한사람이었고 7명의 역대필리핀대통령밑에서 大使, 외상등 외교관으로 활약한 국제외교계의 원로이기도 하다. 그는 유엔 4차총회 (49~50년)에서 최초의 아시아출신 의장이었고 57년에는 유엔안보리의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신문기자및작가경력도갖고있는 그는 42년에일본의 眞珠灣공격예상기사로 언론인의 최가명예인 퓰리처상을 받기도했다.

그는 젊은세대들에게 길을 터주기위해서라고 자신의 사임동기를 밝혔다. 그는 사임의사를 작년6월에

14年長壽…국제外交界 巨物
後任엔 이멜다女史說 파다

도 대통령에게 밝힌적이있다.

그의 사임설이 나돌자마닐라의 소문들은 이멜다여사가 외상직을 승계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親정부계 데일리·익스프레스紙는 사설을 통해 지금과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온전한 목소리가필요하다면서고령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임되기를 희망했다.

로물로외상은 아시아외교, 자주외교의 주창자.그는 일찍부터「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친구란없는 법」임을 강조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외교를 지양할것을 역설해왔다.「아시아국가들은 식민통치의 쓰라린 과거를 경험한 나라들로서 너무 많은 주인을 섬겨왔다. 이제는 성숙하고 균형잡힌 외교정책을 추구할때」라고 늘상말했다.

작년말 UPI와의 인터뷰에서 로물로외상은 미국이 일본에대해 군사력증강을 요구함으로써 중대한 책을 범하고있다고 경고했다.『역사를 무시하는 자는 역사의 희생자가 된다」고 말한 그는『미국은 일본에 태평양방위의 대리역할을 맡기는 것에 보다 신중해야한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74년 한국을 방문한바있는 그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도 『힘에 바탕을둔 화해정책을 밀고나가야 할것」이라고 일가견을 피력했다.

『유럽은 다른민족, 다른언어, 역사속에서도 국가간의 국경은 희미해져가고 통합에의 길을 걷고있다. 미국도 남북전쟁을 겪고 통일을 이룩하지 않았는가. 한반도의 통일도 서둘러야 되는것은 아니겠지만 歐美人들이 이룩한것을 아시아인이라고 못할 이유는 하나도없다」

로물로외상은 이처럼 한반도통일을 낙관하고있는 외교관이었다. 【林鍾乾기자】

美·中共 섬유協商 失敗로 끝나

美 輸入규제 中共 보복警告

◇祝杯드는 「이」·레바논 協商대표 제6차 레바논 철군협상에서 議題가 합의된뒤 다비드·킴체 이스라엘수석대표가 일어나 美중동특사및 레바논대표와 건배를 들고있다. 【키리아트시모나 (이스라엘) 13日UPI=聯】

【北京·워싱턴(外·AP=聯)】조지·슐츠美국무장관의 중공방문을 앞두고 최근 北京에서 약1주일동안 열린 제4차 美·중공섬유협상은 실패로 끝났다고 13일 양국이 동시에 발표했다. 미국은 이 협상실패와 때를 같이하여 이날 중공산섬유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존·휴즈美국무성대변인은 그러나 美·중공양국은「상호 편리한 시기」에 협상을 재개할것이라고 밝히고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조지·슐츠 美국무장관의 중공방문은 아무런차질도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北京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중공이 對美섬유수출을 年間 6%씩 늘리려하고있는 반면 미국은 1%정도의증가를 고집했다고 전했다.

휴즈대변인은「협정부재」의상황하에서 미국은 앞서의 발표대로 국내市場 보호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다짐했다.

중공측 협상대표인 리·뎅샨은 만약 미국측이 중공산섬유제품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조치를 취할경우『강력한 보복조치를취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공측은 협상을 계속할생각이지만 미국이 실질적인 양보를 보이지않은채 중공측에만 양보를 요구할경우 전혀 무의미한결과만낼것이라고 말했다.

중공관리들은 만약 미국이 中共産 섬유제품수입 억제위협을 실행에옮길경우 중공은 對美경제보복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議題 5개항 합의

이·레바논協商 戰爭상태종식·撤軍등

【키리아트시모나(이스라엘) AP·AFP=聯】이스라엘과 레바논은 13일 레바논주둔 외국군의 철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6차회담에서 「전쟁상태의 종식」등 5개항의 회담의제에 합의, 의제를 둘러싼 3주동안의 교착상태를 타개했다.

이스라엘 대표단의 다비드·킴체 수석대표와 레바논 대표단대변인 아테프·타라베소령은 이날 이스라엘의 키리아트시모나에서 6차회담이 끝난뒤 기자들에게 양측이회담의제에 합의했다면서 합의된 5개항의 의제를 英語와 히브리語, 그리고 아랍語와 프랑스語로 각각 낭독했다.

양측이 발표한 5개항의회담의제는 ▲전쟁상태의 종식 ▲安保協定체결 ▲양국관계·자유교역및 국경자유왕래등을 포함한 호혜협정의 대강마련 ▲레바논 주둔외국군의 완전철수 ▲외국군철수의 보장책 마련등이다.

양측대표단은 미국측의 중재로 작성된 의제합의서에서 이 5개항의 상호관계를 고려,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동시에 논의할 것, 필요할 경우 양측 대표단이 새로운 의제를 내놓을수있다는것등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레바논은 오는 17일 베이루트 남부교외 할데에서 열릴 레바논주둔 外軍철수에 관한 제7차 레바논·이스라엘협상에서 레바논주둔 이스라엘軍의 전면철수를 위한 포괄적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레바논관리들이 밝혔다.

소식통들은 레바논측이 7차회담에서 제시할 이 포괄적 계획에는 약2만5천명에 달하는 레바논주둔 이스라엘軍의 철수일정이 포함되어있으며 이와 함께 이스라엘軍철수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이스라엘측이 요구하고 있는 안보협정체결문제에 관해 레바논이 對이스라엘 협상을 개시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核武器 除去촉구

바條約기구 국방상회의

【프라하AP·AFP=聯】바르샤바조약기구는 13일 東·西양진영이 유럽에서 중거리핵미사일이나 전술핵무기들을 완전히 제거할것을 촉구했다.

바르샤바조약기구는 이날 프라하에서 3일간의 국방상회의를 끝내면서 발표한 공동성명을통해 그같이 촉구하면서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유럽배치중거리미사일의 급격한 감축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명은 또한 나토(北大西洋조약기구)가 계획대로 美製 퍼싱Ⅱ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 5백72基를 배치할경우 東·西양진영간 신뢰가 약화되고 유럽정세가 악화될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웬사造船所 복귀 自由노조 鬪爭계속

【바르샤바AP·聯=聯】해체된 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전기공으로 다시 일하기위해 13일부터 그다니스크의 레닌조선소에 복귀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작년11월 연금상태에서 풀려난 바웬사는 이날 그다니스크자택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자유노조의 요람이며 나를 해고한 곳으로 돌아갈것」이라고 말했다.

蘇 새衛星 또발사

【모스크바AP=聯】소련은 그들의 核추진 첩보위성 코스모스1402호가 지구로 추락하고 있음에도 불구, 코스모스인공위성시리즈 발사를 계속, 12일 새로이 코스모스1428호를 지구궤도에 쏘아올린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관영 타스통신은 이날 소련이 12일 코스모스1428호를 성공적으로 발사, 지구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보도했다.

코스모스1428호는 우주자료수집뿐만아니라 과학장비의 작동상태를 지구로송신할수 있는 무선전신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해외公報관장에 崔兌洵씨 임명

정부는 14일 해외공보관장에 崔兌洵駐日문화원장을 1급으로 승진, 임명했다.

3黨총장 새해인사

權翊鉉民正黨사무총장은 14일저녁 柳漢烈民韓·申喆均국민당 사무총장을 부부동반으로 서울플라자호텔에 초청, 만찬을 함께하며 새해인사를 교환했다.

人事異動

文化放送 ▲기획실기획부장 朴英一(라디오제작1부차장) ▲依願免職 愼右宰(기획부장) (15日字)

本社來訪

▲金榮達씨 (二洋藥品廣告部長) ▲金正顯씨 (롯데쇼핑常務理事)新年인사차.

社說

清新한 政黨政治 발전
—새봄政街動向과 與黨이 先導할일

새해 벽두부터 퍽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政街의 「차분한활기」는 우선 제5공화국 與野政黨들이 너나 없이 新春에 創黨제2주년을 맞이하면서 紀念행사 내지 全黨대회를 준비하는 동시에 地區黨개편을 서둘러야했던 사정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의 기능과 역할을 省察한데 입각한 黨의 새進路 모색 또는 指導部의 존재양식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았다고 들린다.

나아가서 새해의 政治氣象圖에 몇가지 不確實要因이 곁들인 狀況的 與件變化가 관측되기도 했다. 그중의 하나는 국민和合과 새시대 同參의 증폭을 다지는 예측문제와도 관련이 없지않다고 한다.

때마침 오늘 改革政治의 先頭走者임을 자부하는 民正黨의 創黨2주년 기념식이 간소하면서도 성대하게 거행된다. 이어 오는 2월8, 9일께는 民韓黨의 全黨대회가 개최되는 한편 국민당의 첫 全黨대회도 2월3일로 예정되어있다.

野黨圈의 주요한 두政黨이 각기「平和的 政權交替의 기틀 마련」혹은「與黨 오해의 불식」등을 벼르고 있다는데, 어차피 對話政治의 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全黨대회를 겨냥한 일부 對與政治攻勢가 없을수 없으리라는 관측이 나돈다. 하나 野圈의 自體確認노력은 아직 진행중인 사태이고 좀더두고보아야할 일이다.

오늘 創黨2주년을 기념하는民正黨은 본시 改革主導세력을 핵심으로 民族·民主·正義·福祉·統一등 5대理念을 표방하면서 발족하였다. 그리고 저간에 제5공화국 多黨制하의 政局安定을 과시했는데 특히 그 安定이 與野政黨간의 開放的 對話창달과 유연한 協調노력의 바탕위에 다져진 점을 평가할수 있겠다.

民正黨은 또 黨政관계에서도 責任政黨다운 主體性과 향도력을 비입비재하게 증명한바 있다. 政策開發을 民意수렴에 직결시키려고 노력한 흔적도 뚜렷했다. 「신뢰받는 깨끗한 政治風土」의 조성으로 말하면 與黨혼자서 모든 책임을 떠맡을바 아니지만 「公人정신」「單任정신」등 意識改革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黨의 內實化를 위해 형식적 黨勢확장 보다도 실속있는 黨員교육에 주력한 착안도 긍정된다.

요컨대 오늘의 與黨은 70년대 與黨과는 다르다고 하는 참신한 自體確認노력에 상응한 평가를 부여할수 있다는 것이다.

하기야 아직은 단정할바 아닌 지속적 문제의식이 적지않은것도 사실이다. 먼저 與黨총재이기도한 全斗煥대통령의 지론인 「單任정신」이 국회의원 수준에서 과연 어느정도 정착되었는지에 관하여 일말의 궁금증이 없지않다. 이와 관련하여 與黨의 하부조직이 얼마나 특정政治人의 입김을 벗어나 「公組織化」했는지 속단하기 어려운 느낌이다. 나아가서 국회운영과 관련하여 野黨의원들에 비교되는 政治的경험과 전문력의 대조문제가 따르게 될는지 모른다.

원래 「理想과 現實」의 조화 추구는 改革政黨에게 있어 오래고도 새로운 문제거리라고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새型의 與黨답게 국민속에 理念的·組織的인 뿌리를 갖고 政治의 上·下邊에 걸친 意思소통의 循環作用을 원활케 하려면 모든 黨員의 特權化를 계속 방지해야 할것이다.

끝으로 與黨이 政策開發에 있어 黨政관계를 主導하려면 政策手段의 合理的 선택을 에워싸고 行政府의 實務陣과 논의를 거듭하는것 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政策결정에 이은 政策집행과 政策制御에 걸쳐 政治社會의 基盤에 나타날수있는 반응에 민감해야하며 또 狀況的 與件변화를 제때에 감안할줄 아는 機動性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民正黨은 創黨宣言文에서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국민의 公黨」이될 것을 다짐한바있다. 創黨2주년에즈음해서 黨員의 모럴과 作風에걸쳐 진지한 自家省察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새해의 與野政黨政治가 安定기조를 지속하면서도 淸新味있는 발전을 증명할수 있게되기를 바란다.

非違官吏 아직 남았나
—전鐵道廳간부 受賂사건등 놀랍다

廳長級을 포함한 高位公職者들이비위혐의로 사임하고 잇따라 수사당국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이미 보도된대로 며칠전에 사임한 前鐵道廳長과 그 관하의 철도건설국장및 호남공사사무소장등 3명의고급관직자가 부하와 업자들로부터 뇌물을받은 혐의로 9개철부업체관련자 13명과 함께 大檢察廳中央搜査部에 의해 구속됐다는것이다.그밖에10여명의 철도청직원들도 不美한 일로 수사기관의 인사조치요구대상이 되었다.

또 大法院長의 전직 秘書官은 작년 7월 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거액의外貨密搬出기도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외에 여러해전부터 스스로도 外貨를 密搬出한 혐의로 그의 친구와함께 구속되었다 한다.

깨끗한 吏道를 기약하며 官民이 함께 公職者들의 청렴을 소리높이 강조하고 그 非違不正을 단속하고있는 이즈음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철도청장이라면 職位가 높을 뿐 아니라 그 예하에 3만3천여명의 공무원을 거느린 빛나는 자리다. 한마디로그는 스스로가 처한 자리의 중요성과책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수밖에 없다. 또 司法府최고위의 비서관자리에 있으면서 私利私慾에 빠져 법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역시 실로 괘씸한 일이다.

다행히 法의 威勢가 엄하여 이들이 수사대상이 된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이제 不正과 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意志는 政府와 온국민의 公願이자 悲願이며 安保나 淨化차원에서 소홀히 할수 없는 터이다.

公共의 權力이 깨끗한 바탕위에서 行使될때, 비로소 그 토양위에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이라는 꽃이 핀다. 그러므로 이번 法網에 걸려든 高位公職者들의 비위는 단지 사사로운 범행에 그친다기보다 그런 발전의 리듬을 깨고 멀어지게 했다는데서 공적인 충격이 서려움게 했다하여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雜草와 雜버섯같은 이런 수뢰독직사건은 원하지않는데도 때와 곳을 가리지않고 생겨난다. 그러면 그런범죄의 씨앗을 發芽前에 배제하고 不幸히도 싹이 돋아나면 즉시 이를 除去함으로써 禍根을 방지하여 마땅하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때 수사당국의 용단으로 地位如何를 가림없이 이번 사건에 철퇴를 가하려한 것은 평가되어 마땅할것 같다.

政府는 그간 공직자들의 非違를 근절시켜 公共기관의 업무를 깨끗하고 신속하며 능률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司正協議會와 社會淨化委員會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活性化하여 公職非違發生의 事前봉쇄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시기에 문제된 非違官吏들을外面하고 不正에 가담한 것은 그지없이 不敏한 소행이다. 관련자 모두가 상응한 法의 심판을 받게 될것이니 이는 不正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사실로써 또한 立證하는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앞으로 공직자부조리를 뿌리뽑는 정부의 결의, 특히 법질주변 정화방침도 확고히 드러난 것이라는 데서 모두가 하나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非違사건에 共犯으로 法網에 걸린 13명이 철도청의 工事를 맡은 업체사람들이라는 사실 또한 놀라움을 자아내게한다. 設計書와 계약조항대로 工事를 하면 굳이 뇌물을 줄까지는 없다고 믿어지는데도 업자측이 不正을 저질렀다는것이 관심거리다.

수사당국이나 관계당국은 이점에관하여 문제성의 소재를 이기회에 철저히 밝혀냈으면 한다. 즉 애초부터 不實工事를 하기위한 입막음으로 뇌물을 준것인지, 아니면 工事를 감독하는 철도청관리들이 트집을 잡으면서 뇌물을 요구하거나 혹은 工事費를 제때에 지급해주지않기 때문이었는지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이런내막이 밝혀져야만 犯法者처리와는 다른 次元에서 유사한 不正을방지하며 업무를 깨끗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할수있는 기풍과 기틀을 튼튼히게 확립할수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記者의 눈 — 民正黨과 經濟관료

한나라의 행정체제를 가름하는 척도로 그나라경제관료들의 머리(頭腦)의 수준이 많이 거론된다. 일본의경우 大藏省관리가 행정부내 단연 돋보이는관리로 꼽힌다. 현대자본주의 국가체제에서는 경제가 정치를 리드하는 소위「逆流현상」을 논해 도억설이라 평가받지않고 있다. 이처럼 현대관료사회에서 경제부처관리는 核이요 중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가 금년도 경제운용계획試案에 대한 수정안을 民正黨에 보고한 13일하오 새해들어 첫번째 고위黨政간담회는 한마디로「黨측에 白紙위임」한 숫자의 나열에 불과했다는 後聞이다. 이날 金埈成부총리와 경제부처실무진은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시안보다 더 낙관적예상치로바꿔 방문했다. 12월시안중 도매물가상승률 5%는 2~2.5%로 소비자물가상승률 6%는 3~4%로 낮게잡았고 해외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요인도 2~2.5%에서 0~0.5%로 불과 한달사이에 뚝떨어진 낙관적 숫자들이었다.

기획원의 보고대로라면 국회가 實行예산대로 다시는追更예산을편성하지않겠다는 對국민약속을 또다시 저버리게되는 追更 편성은 요성을 시사한것 이라는게 民正黨측의 분석이었다. 또 오는20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지구당 개편대회때 금년도 예산안의 만장일치통과를 제5공화국이 만들어 낸 30년 黨政史上 최대의 傑作이라고「조용한 黨」을 조성하려던 民正黨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불발적인變身이라는평가였다. 그래서 民正黨은 지난국회때의 實名制파동의 악몽처럼「國政을 책임지는 정당」이란 意志는 좋았으나 현실을 무시했다는 논란에 다시 빠지기보다「黨優位」를 내세워 自救선언을 한 셈이다.

다시 말하면 관료들이야 자리를 뜨면 그만이지만 집권당은 국민들의 선거를 통한 심판으로 영속되어야 한다는 當爲를 놓고 만에 하나 이를 그르칠 우려가 있는 행정 테크노크라트에 대한 不信을 나타낸것이라 하겠다.

한民正黨 당직자는 13일 金부총리로부터 금년 운용계획 보고를 받은직후「적어도 금년도 예산을 한분기만이라도 집행해 보고 난다음에 그래도「현격한 差」가 있을땐 實行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지 불과한달사이에 예산이 조정되어야할 요인이 생겼다고근본을 바꾸는것은 정부가 黨을 속인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고「물가도 낮추고 輸入도 줄이면서·輸出은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는 兎兩사이로 비를 맞지않고 갈수있다는 語不成說의 논린」라고기획원측을꾸짖었다.

이 소리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제운용계획을 국민앞에 제시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追更이란 空念佛로 끝날경우 정치적바가지(罵避)는 民正黨이 져야한다는 당연한 우려에서 나온것이며 다음선거에서 떨어질 득표율을 예측한 주장이라 하겠다.

문제는 왜 일어났을까? 당측은 제5공화국의 경제관료들은 과거보다 많은 放權을갖고 있다고 믿고있는데 있다.

그런데 實名制건이나 이번 경제운용계획의전에서 당의 반론에 경제관료들이 우물주물 예처럼 엉뚱한곳의 의사를 돌어 변명한게 문제로 알려졌다.

그러나 與野, 國會, 行政府 政府, 국민간에는 異見이있고 주장이 다르고예측이 틀릴수있다. 이런相反이 민주적 토의를통해 합의점이나 상식에 어긋나지않게 타결되는것은 분명 민주적이다. 소리가 있었던게 없는것보다 훨씬낫다는 말이기도하다. 【李揆煥기자】

政局往來

◆正直·용기·決斷力겸비한지도자

全斗煥대통령은 14일 낮 청와대에서 國政자문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나까소네(中曾根)일본수상의 訪韓성과와 자신이본 나까소네수상의 人品등을 설명.

全대통령은 『나까소네수상이 일본내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방문을 결행한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나까소네수상은 매우 정직하고 용기와 결단력을 겸비한 정치지도자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이에 대해 『韓日두나라 사이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각하의 결단력으로 시원스럽게 해결된 것은 새해 벽두에 국민들에게 준 큰 선물이었으며,우리국민들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주었다』면서 『나까소네수상의 이번 訪韓은 우리에게는 잃은것은 거의 없고 얻은것만이 있는 훌륭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

◆民正、創黨發起人15명중12명現職

15일로 創黨2주년을맞은 民正黨은 이날 상오 서울미樂洞 중앙정치연수원에서 당직자、소속의원、참당발기인 중앙위원및 중앙당사무국요원등만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한 기념식을 갖고 낮에는 創黨발기인 15명이 發起선언을 했던 무역회관 22층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

民正黨의 창당발기인 15명중 黨籍을 떠난 사람은 鄭壽昌씨(대한商議회장)、李用熙씨(前亞洲大총장)등 2명이고 나머지 13명중 劉錫鉉고문을 제외한 12명(李鍾贊、權正達、崔永喆、朴權欽、李範俊、金春洙、宋志英、尹吉重、金賢子、朴敬錫、李贊赫、李憲琦)이 모두 현역의원으로 7명이 지역구이고 5명은 전국구。

이들중 李鍾贊의원이 원내총무、崔永喆·李範俊의원이 국회 保社·農水産위원장을,尹吉重·金賢子의원이 中執위원으로,朴權欽·李憲琦의원이 정책위부의장을 각각 맡고 있고 創黨主役이었던 權正達전사무총장은 평의원으로 自從從事하고 있어 創黨2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주고있다.

한편 朴敬錫의원은 『새시대 새질서를 정립해야한다는 의욕으로 創黨發起를 했으며 그때의 이상과 뜻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피력.

◆제도개선돼야 평화적 정권교체

14일 再開된民韓黨개편대회는 仁川中·南區(위원장 金殷夏의원)、江原寧越·平昌(高泳耉의원)、慶北榮州·英陽(洪思德의원)등 5곳서 열려 『안으로는 제1野黨의 進路』를찾으며 『밖으로는 제도개혁과 在野의 同參』을 촉구.

이날 仁川지구에 내려온 柳致松民韓黨총재는 치사에서 『제도의 뒷받침없이 진정한 평화적 정권교체는이루어질수없다』고 各級선거법의 개정을 강력히 추구하면서 오늘의 정치적 氷點속에서도 民衆의 가슴에 훈훈한 희망을 안겨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이어 金判述의원은 『亂世를 헤치는 야당은 방향제시가 있어야한다』 『多黨制는 여당을 코끼리처럼 積分하고 야당을 생쥐처럼 微分하는 수학』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非黨權派의 辛相佑전사무총장은 힘에 의한 정치보다도 牧者의 피리소리에 羊떼가 따르는 德治가 중요하다』고 정부·여당을 겨냥한뒤『여당이 정부의 侍女가될때 국회가 불행해지듯이 야당이 여당의 侍女가 될때 나라가 불행해진다』고 民韓黨의 자세정립을 거듭 강조. 【仁川=金永煥기자】

◆국민、全黨大會日字異議없이결정

·전당대회日字등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14일상오의 국민당전당대회준비위제2차회의는 아무런 異議없이 日字와 장소를 간단히 결정。

이날 準備委는 2월1·3·7일案을 놓고 협의를 시작했으나 1일은 故崔映植선생추도일이며 7일은 民韓黨전당대회가 8·9일 이틀간으로 잡혀있어 피해야한다는 申喆均사무총장의 설명에따라 3일로 낙착。

또 장소로는 세종문화회관별관、국립극장、舊서울고강당등이 제시됐으나 국립극장은 2월한달간이冬季補修기간인데다 정치적행사로 사용되는데 난색을 표하고있고 舊서울고강당은 난방시설이 되어있지않아 창당대회를 치른 세종문화회관별관에서 대회를 갖기로했다.

國政자문위원들 "日수상訪韓으로 우리는 얻은것이 많아"

어디에도 비교될수없는
저렴한 가격과
아담한 분위기속에서
고객을 맞이하고있아오니
한번쯤 들려보십시요!

내고향통닭집

☎537-0432 매니저 배

오 뎅 백 반	$2.95
탕 국 수	$2.95
우 동	$2.95
짜 장 면	$2.95
김 밥	$2.50
물 만 두	$2.95
곰 탕	$2.95
비 빔 밥	$2.95
불 백	$4.95
갈 비 백	$4.95
생선찌게백	$3.75
두부찌게백	$3.25
만 두 국	$2.95
떡 국	$2.95
떡 만 두 국	$2.95
된장찌게백	$3.25
순두부찌게백	$3.25
통 닭	$4.95
1/2 닭	$2.95

658½ BLOOR ST. W.

理想과 現實은 "딴판"

大学入試제도 이대로 좋은가

이상과 현실은 비슷하게맞아떨어져야 빛을 발한다. 이상이 아무리좋다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을때 그것은 하나의 공념불이 되기쉽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부풀게해 현실적응력을 감퇴시키는 부작용까지 생긴다.

우리의 입시제도는 이상쪽에 상당히 치우쳐 있는 느낌이 든다. 현실에 적합할것인지에 관한 충분한 임상적실험없이 탁상에서 만들어진게 아니냐는 의구가 없지않다.

평소 문교당국자들이 주장한는 바를 들으면 이로 정연하다. 그러나 한발자국 뒤로 물러나 생각해보면 이상에치우쳐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는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국가적으로 똑같이 한날한시에 시험을 쳐서, 그것으로 대학을 결정한다. 똑같은 시험이므로 모든대학에 일관성있게 적용돼 공정하다.

돈과 입력낭비를 막을수있다.

문제는 고교과정에서만 평이하게 골고루출제되므로 학교수업외에 무리하게 공부안해도 된다. 과외는자연히 해소된다. 만약 대학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시험문제를 낸다면 출제없이 어렵게 출제해 수험생들에게 과외공부를 하도록 자극한다.

게다가 고교전과정이 내신성적을 어느정도 반영한다. 내신성적은 앞으로 더욱 넓혀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내신반영은 수험생으로 하여금 학교교육 즉 교실을 중시하게 할수있다.

먼저 시험을 치르고 나중에 대학을 선택한다. 우수한 학생은 될수록 많이 선발하게돼 국가적인력수급에 도움을준다. 또 자신의 성적에맞게 대학을 고를수 있으므로 입시혼란을 어느정도 해소시킨다.

이상의 언담이 당국자의변이다.

그러면 그같은 언담이 실제로 이뤄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가. 여기서 추상적인 논리의 타당성여부는제쳐두고 나타난 현상, 우리눈앞에 똑똑히 보였던 것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학력고사는 4지선다형이다. 한꺼번에 60여만명이 시험을보고 평가해야 하기때문에 4지선다형문제는 다른방법이없다.

4지선다형에서는 개인의 창조성, 조직력등 구체적인 능력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기억과 응용력을갖추면 훌륭히 평가된다. 창조성등 4지선다형에서평가할수없는그외의 능력을 잔뜩 가지고있어도 단지 기억과 응용력이 모자란는것 때문에 「고교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했고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의꿰히기가 10중 8·9다.

학제상의 문제도 있다. 난이도의 기준이 없어 매년 격년제로 쉬웠다 어려웠다를 주기적으로 되풀이한다. 고득점자가 많이 나오고 평균 성적이 향상되면 학력이 향상된것으로 인정하려 든다. 어느 교육학자는 이같은 인정에 「교육정상화를 가장한 홍보용으로 고득점사태를 즐겨위하고 있다」고 평하기도했다.

그다음, 선시험-후지원의 모순이나 당국자의말대로 자신의 점수를 알게되니 수험생들은 질서있게 학과를 선택할것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성적통지가 있자마자 수험생들은 얼른 학과를 선택해 입학원서를 제출해야한다. 성적을알고 지원서를내는 그2~3일사이 대부분의 수험생과 학부모는 마음의 동요를 피할수없다.

문교부가 가르친 정석대로라면 1년전 또는 2~3년전부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 시험성적에 관계없이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수험생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 이점수면 저대학 무난할까, 아니면 이대학 무난한 과에 맞을까 헤아려야한다. 점수가 좋으면 적성학과에 가는것은 「손해이다」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눈치없이 평소생각했던 학과를 지원했다가는 떨어질 확률이 많으므로 피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적성이고 뭐고간에 한두수없이 막판에 눈치를 봐야한다.

이때에 고등학교때 받은 진로교육이 무슨 효험을 볼 것인가. 심지어 많은 입시창구앞에서 일선교사들이 지휘해가며 학과선택의 눈치를 보는것, 대부분 학교에서 백지위임장 처럼 지망과를 빈칸으로 남겨놓고 원서작성을 해주고 있는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드세질 高校 치맛바람

또 있다. 내신성적 반영의 모순이다. 내신반영은 우리의 모든 지역의 고교와 학교간의 성적격차가 균등할때 공정하다. 하나 실제로 균등할수도 없고 균등하지도 않다. 각각 틀려도 상당히 틀리다.

우선 전국에서 20개지역만 평준화가 되어있다. 같은 지역이라도 학교에따라 심한 학력차이가 난다. 성적이 좋은 학교의 학생들은 내신등급에서 상당한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

◇면접을 위해 대학에 나온 수험생들. 이들중에는 눈치를 봤던 「눈」들이 상당히 많을듯하다. 현행 대입시제도의 이상속엔 「눈치」는 분명없다.

內申등급 學校따라달라 當落좌우

문제難易度 기준없어 "쉬웠다" "어려웠다"

시험은 고도의 공정성을기해야한다. 그런데 이같이 성적이 같다하더라도 등급은들쭉날쭉이다. 가뜩이나 올해처럼 고득점자 사태하에서는 내신한등급의 차이는 당락을 민감하게 결정하는 중요한변수로 작용한다.

고교에서의 내신평가가 제아무리 공정하다해도 돈과권력이 있는쪽이 조금이라도유리하다고 생각하는사람이 많다.

지금 일선고교에서 담임교사와 음악 미술 체육 교사의 비중, 다시말하면 학부모 들로부터의비중이 얼마나 큰가는 학부모자신이 잘알고 있다. 이교사들의 특징은 비교적 주관적평가가 가능한과목을 맡았다는 점이다.

어느 에피소드-한입시전문가가 고3수학교사와 상담하고있는데 그곳까지 학부모 한명이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왔다. 그 학부모는 간청했다 「우리 자식이 수학점수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2등급이 못된다. 2백만원을 드리겠으니…」이 광경을 에피소드로만 돌릴수 있을까.

과외는 법으로 다스려 근절할수있으나 치맛바람을 다스리는 법은 아직없다.

입시가 치러지는 광경을지켜보면서 84학년도에도 올해의 재판이 나올것인가를 누구나 걱정하고있다. 입시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려하기보다는 시험기술적 측면으로 보고있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우려도 나온다.

눈치야 어떻든, 혼란이야 어떻든눈에보이는나쁜결과인 미달사태가 많이나지않기를 바라고 있다면 곤란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말하면서 바로앞만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입시진행과정에서 「약속」들이 지켜지지않는 이유들을 음미해보자. 「교육적으로 문제가있으니 중간집계나 최종집계를 발표말라」 「6시마감시간을 꼭 지켜라」 「진로지도 철저히 해서창구앞에서 지망과를 바꾸지 말도록 해라」 「우수생유치를위해 대학은 돈으로 흥정치 말라」

그런데 이중에서 무엇이 지켜졌는지 궁금하다.

지금의 대입시제도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이런 사소한 구석에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면 그것은 비평을 위한 비평을 하는셈이 될것인가.

【李鏞九기자】

메아리

大入原論

金昌悅 <論說委員>

한 10년전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가 「大學發展3段階說」이라고 할 假說을 내놓았다. 선진공업국을 중심한 고찰이지만, 우리에게도 참고가된다.

그에 의하면 대학발전의 첫 단계는 엘리트大學이다. 이때까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소수의 「特權」이며, 대학의 기능은 支配層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매스(大衆化)의 단계가 온다. 그 경계는 適齡人口중 대학생의 비중이 15%를 넘는 線이다. 이때의 대학 진학은 「特權」이기보다는 「權利」로 인식된다.

適齡人口와 대학생의 비율이 50대50을 넘어서면, 대학은 유니버설(普遍化) 단계에 접어 든다. 여기이르러 대학 진학은 「權利」 아닌 「義務」가 되며, 지도자 양성보다는 모든 국민을 산업사회에 적응토록 교육하는 것이 대학의 임무가 된다. 아직 이 단계에 이른 나라는 없으나 그 싹은 여러군데 드러나고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쯤 와있을까.

우리나라의 適齡人口대비 대학생비율은 79년에 14.2%, 작년에는 22.6%였다. 일본은 33.9%(79년), 미국은 34.3%다. 대학생의 비중만을 따지면, 우리나라대학은 80년대를 열면서 大衆化의 경계를 돌파한 것이다. 그 랜드·마크(경계표)가 7·30敎育改革인 셈이다.

앞서의 3段階假說이 얼마나 우리나라 실정에 타당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제2단계 徵候로 예시한 현상들은 우리나라현실에 그대로 부합한다. 그것은 진학희망자 증가에 따른 대학의 肥大化와 신규설립, 量産교육, 그리고 진학동기의 변화, 입학경쟁의 격화, 학생과 교원간의 沒人格的인 관계등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그것을 단적으로 집약한 大入제도의 말썽은 이런 각도의 고찰이 가능하다. 그것은 어느나라에서나 필연적인고등교육 팽창의 문제다.

다만 우리의 경우는 그 팽창이 너무 급격하고 변칙적이었다. 게다가 그에 대한 對應이 번번이 徵候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했던 탓으로 끝내는 골병에 이른 편이다.

얘기를 일단 大入제도에 한정해 놓고 보면 그 사정이 좀 더 분명해진다.

교육팽창의 물결은 국적으로 대학門에 몰리고, 격심한 大入경쟁으로 나타난다. 그 극단적인 표현이 過熱課外다.

이의 대책으로 대학의 증설, 정원의 증원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大入정원이 늘수록 경쟁을 격화시키는 것이 大入의 生理다.

그것은 대학이 늘면 대학간의 格差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대학간·학과간의 序列이 생긴다. 덩달아 職場에도 등급이 매겨져 序列化한다. 그 끝장은 學歷社會를 넘어선 學校歷社會, 그것도 모자라서 學科歷社會다.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까지 왔다.

이쯤되면 사태는 良識의 손아귀를 벗어난다. 그렇잖아도 敎育熱이라는 이름의 上向衝動이 강한 이 땅에서, 한치라도 「序列의 계단」을 더 오르려는 4천만의 「全員마라톤」을 멈출 장사는 없다. 학생과 대학을 구슬처럼 한줄에 꿰서 序列을 매기는 內申과 학력고사 方式이 이를 부채질한다.

이 악순환은 지금 大入제도가 前提삼았던 「神話」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大入대책으로서의 大入증원이 부질없음은 改革뒤의 지난 몇년이 증명한 대로다. 大入제도와 「쉬운 出題」로 고교교육을 정상화·평준화한다는 난센스의 실속도 이미 드러났다. 지금 제도로는 대학의 序列이 더욱 강화되고, 고교교육은 거기에 連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쉬운 것은 대학의 정상화요, 평준화다. 그것이 大入 매듭을 푸는 길이다.

그 따위 「神話」가 남아 있는동안 大入의 혼란은 가셔지지 않는다. 內申의 평가방법이 어떻고, 학력고사가 어떻고의 「各論」은 별의미가 없다.

OECD (經濟協力開發機構) 자료를 보면, 대학단위의 入試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나라는 일본이외에 터키와 포르투갈뿐이다. 大勢는, 형식이야 어떻든, 전국 규모의 학력고사와 內申을 병행한다. 우리 大入제도가 유별나거나 그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大勢에 걸맞게, 겉이 번지르르한 우리 大入제도가 구실을못하고 혼란을 거듭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여러 갈래이겠으나, 모두 교육의 근본에 관계된다. 그 것을 나는 目的이어야할 교육을 한낱 手段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부형과 학생들은 교육을 「榮達의 手段」으로, 교육행정은 그것을 「統制의 手段」으로잘못 인식한 것이다. 그것은 물구나무 선 敎育萬能思想이다.

이처럼 엇바뀐 目的과 手段의 관계를 지금 大入제도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大入선발의 뜻은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를 뽑는데, 그것을 고교정상화의 방편으로 둔갑시켰다. 고교정상화의 手段은 內申으로 족할것을, 문교행정이 대학고유의 권한까지 침범하여, 뒤흔들어놓고, 대학의 序列이나 매긴다. 大入선발의 고유權限마저 自律하지못하는대학이 정상일수가없으니, 그 여파가 고교교육에로 逆流한다.

앞서 본대로, 大入의 혼란은 그것만의 현상이아니라 하나의 악순환이다. 그런 악순환을 끊는 길은 악순환이있기전의 첫머리를 살피는데서 찾아야한다. 그것은 교육의 本質을 먼저 묻는것이다.

迂闊한듯 하지만 길은 그것뿐이다. 지금 아쉬운것은 大入제도의 「各論」이아니라, 그 「原論」이다.

不協和각료 잇달아更迭 레이건 再選布石

헤이그辭退후 4명떠나

【워싱턴=李文[illegible]특파원】 지난해 6월 헤이그국무장관이 전격해임된후 나온애기는 헤이그의 강한 개성에 기인한 백악관진용과의 불화가 가장 큰 해임원인이라는 것이었다.

헤이그가 물러난후 똘똘뭉쳐 잘돌아 가는 것처럼 보이던 레이건의 각료들이 지난 6개월 남짓 사이에 모두 4명이나 이런저런이유로 레이건의 곁을 떠났고 12일에는 각료급이자 레이건으로서는 상당한 역점을둔 자리였던 군축국장 유진·로스토가 또다시 전격해임되기에 이르렀다.

해임이나 사퇴의 배경은 모두 각각이다.

그러나 레이건이 중간선거를 고비로 여론조사의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그의 많은 정책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는 상황에서잇달아 일어나는 해임사태여서 레이건진용의 균열같은 인상을 어쩔수 없이 주고 있다.

레이건의 해임조치들은 그가 서투르다는 대외정책에서도 어지간히 경험과 경륜을 쌓았고 더구나 취임 2년이 지나고 재출마여부가 걸려있는 나머지 2년을 향해 달리는 마당에서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레이건측근에 의하면 로스토의 경우도 여기에 속하는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는 헤이그처럼 불화쪽에 더 가깝다.

떠난 각료들의 상황을보면 이런 점들은 좀더 뚜렷해진다.

떠난 각료들의 면면을보면 헤이그다음이 에너지장관 제임즈·에드워즈·그다음이 작년말 사퇴의사를 밝힌 드루·루이스 운수성장관, 이어 11일엔 리처드·슈웨이커 보건후생성장관, 12일에 로스토로 되어있다.

에너지장관을 비롯, 운수·보건후생성장관의 경우는 모두 사퇴 형식으로 되어있고 이들의 경우는 본인이나 백악관측이 모두 개인기업의 초빙을받고 장관직을 떠나게 되었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책과 얽힌 사연이 전혀없는것은 아니다.

철저한 감세주의자인 레이건이 작년말 기름1갤런당 5센트씩 부과하는 증세법안을 내놓았을때 가장 반대가 심했던곳이 트럭운수업자등 바로 운수성산하의 기업들이었다.

레이건은 5센트 부과로 얻어지는 稅수입으로 도로확장보수를하고 이로인해 일자리도 만들어 낼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그러자 가장 직접적인영향을 입을수있는 운수관계 기업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으나 이증세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어 레이건에 의해 서명되었다.

보건후생성은 그 예산이 국방부문과 맞먹는 2천7백60억달러로 그 항목이란 레이건이 가장큰 삭감표적으로 삼고있는 사회보장, 의료보호, 연금지급등을 맡고있는 부서로서 84회계연도기준 2천억달러에 육박하리라는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위해 정부가 지출삭감의 대상으로 군축을 들이고 있던 곳이다.

그러나 로스토의 경우는 앞서 말한것처럼 헤이그와 유사한 점이 많다.

우선 그는 레이건및 그의 보좌관들과 정책에대한 불협화음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對蘇관계가 레이건 대외정책의 핵심이라면 군축문제는 바로 이 핵심문제의 핵심으로 되어있다.

對蘇 군축협상에서의 부[illegible]만은 이날 로스토와 함께 유럽 東西減軍 협상대표 리처드·스타의 사표도 함께 수리한것만 봐도 알수있다.

그는 휘하기구를 잘못운영해 왔을 뿐아니라 제네바 군축협상의 부진도 그의 이런 업무수행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백악관 래리·스피크스부대변인은 그의 해임에 대해선 대통령과 그의 외교보좌관들사이에 완전한 의견일치가 있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사실 로스토는 69세의 고령에 건강문제가 있었으며 레이건은 늘 풀타임으로 일할 수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되뇌어왔다. 후임으로 36세의케네드·애델만 유엔대리대사를 임명한 것도 이런 이유로 볼수있다.

더우기 로스토는 자기분야외에 중동문제등에 관해서까지 이런저런 간섭을해 백악관측근들과 거리를 갖게 되었다가 최근에는 로스토 바로 밑에 있는로버트·그레이에대해 일단의 의회보수계의원들이 반기를 들어 그를 부국장자리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사실상 로스토의 자리는 금이 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스토의 해임이 레이건 주변의 의견일치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국무성일각에서는 그가 유럽에 잘 알려져있고 미국이 對蘇군축협상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그렇지않아도 회의적자세를 보이는 유럽우방들사이에서 그의 해임조치가 어떻게 비춰질까하는 점을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기 3년째에서는 대개 인기가 하락하고 이때문에 재선을 위해 각료 개편을 시도하는것이 미국정치의 상례로 돼있지만 상례를 넘은 최근의 빈번한 요직 인사 교체는 레이건 전열이 지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경제정책등을 비롯해서 그가 너무 정치적수세에 몰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들리는 애기로는 문교장관을포함, 몇몇 각료급의 사임이 또 있을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공화당내에서도 며칠전 그의 수족같은 상원원내총무 하워드·베이커의「1984년 상원불출마 선언」같은 것은 레이건이 그의 정책방향의 정비못지 않게 그의 전열의 재결속도 시급하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제임즈·에드워드

◇레이건 大統領

◇유진·로스토

여성票겨냥 두女長官임명 文敎등 곧後續인사

海外토픽

◇스키 즐기는 英皇太子부부 찰즈영국황태자와 다이애너황태자비가 오스트리아 스키장에서 스키를 즐기고있다. 【레흐(오스트리아)13日AP特約=聯合】

짐바브웨 新種 性病만연

국민20%가 경험 女子는 절반이나

짐바브웨인구 7백50만중 적어도 20%이상이 성병에걸린적이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그비율이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한조사결과 나타났다고.

짐바브웨약대의 마주루·군디드자박사가 조사한 지난76년이래의 통계에따르면 인구의 20%이상이 성병에걸렸거나 현재 감염되어있는등 성병이 극성을 부리고있는데 특히 최근 6개월간 수도하라레의 한 주택구역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의하면 여자들은 예외없이 모두 성병에 걸린 경험이있는것으로 나타났다는것.

군디드자박사는 특히 요즘 서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건너온 페니실린에도 듣지않는 신종성병이만연되고있어성병퇴치를 더욱 어렵게하고있다고 밝히기도. 【하라레=UPI】

첫 데이트때 32%가 키스

印尼학생 性的習慣 조사

인도네시아경찰은 최근 학생들의 성적 습관에관한 보고서를 지방 신문에 발표, 물의를일으킨 15세짜리 중학교상급반학생을 환문했다고.

「E·H」라는 두문자로만 밝혀진 이학생이 4백61명의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근32%가 첫번째데이트에 벌써 키스를하고있으며 22%가 짙은애무를, 그리고 13%가이미 성교경험이 있다고응답. 또 34%가 도색영화를 관람했으며 이중 3분의1이 이에 만족감을 느꼈다고 응답한반면 거의 같은 숫자가 혐오감을 느꼈다고 대답. 【자카르타=UPI】

宇宙寫眞도 鮮明히

★美 곧대규모 觀測所발사

80년대 말까지는 우주사진이 육안으로 본것처럼 선명해질 것이라고.

美항공우주국 (NASA)의 프랭크·마틴씨는 이는 곧 우주공간에 쏘아올릴 대규모 관측소에 의해 가능케되는데 우주사진의 선명도가마치 흑백TV만보던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컬러TV를보는것과같은 정도의 차이를느끼게 될것이라고 설명. 【보스턴=UPI】

英뚱뚱보 계속增加

★成人3분의1 肥滿症

영국의 성인가운데 3분의1이 비만증에 걸려있으며살찐사람의 수가 계속늘어나고 있다고 영국왕립내과의사회가최근한보고서에서밝혔다.

이보고서는 비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주류에 고율의세금을 부과하고 지방질이적은 식품을보다 많이 섭취하고스포츠시설을 개선하도록촉구. 【런던=UPI】

알 림

종중일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임술년을 보내고 희망에찬 복된해 계해년을 맞이하여 일가여러분의 가내에 만복이 깃드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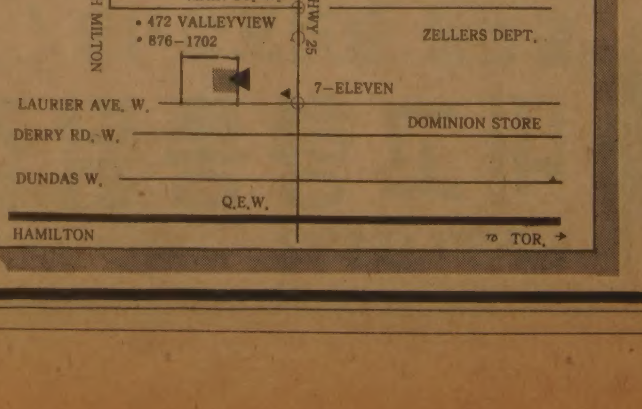
저희 종친회는 회원들의 단합으로 일취월장 상호부조하며 낯서른 이민생활에도 외로움을 잊으며 재미있게 모임을 거듭하고 있음은 오로지 회원여러분의 조령숭앙과 일가단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삼감사드립니다.

금번 새해의 첫 월례유사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아직 동참하지 못하고 계신 많은 일가회원으로부터 여러번 문의전갈 또는 전화연락을 받았읍니다마는 일일이 통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면을 빌어 일괄안내 드립니다.

부디 소만합석하옵기 학수고대합니다.

◇일 시 : 1월22일(토) 오후7시
◇장 소 : 약도참조.
◇연락처 : 451—4450, 453—7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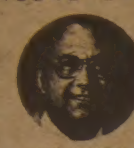


재카나다경주이씨종친회

회장 이 승 영

워싱턴 正初政街에 필·그램議員 파문

"民主黨서 정치적所信 침해" 議員職사퇴…共和이적 선언


◇필·그램議員

특파원 노트

【워싱턴=李文雨特派員】

"올해나 내년 結婚하면 夭折"

紅燈街늘어 홍콩서 원정도

【金一鎭기자】

迷信·도박·性범죄 만연

골머리앓는 中共

◇미신과 도박 그리고 서구의 개방풍조가 서로 갈등을 빚고있는 중공사회。장례식은 미신의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이다。사진은 40년대 北京의 장례행렬。 【슈피겔誌에서】

世界의 社會面

얼굴에까지 새겨… 일부선 "새 파시즘 징조" 우려

영국 젊은이들간에 文身이 유행하고있다。이들은 몸이나 가슴 팔등에 문신을 새겨넣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얼굴에 하고 다닌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문명비평가들은 「반항의 상징」 혹은 「젊은이들의 주체성 추구」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일부에서는 「새로운 파시즘 태동의 징조」 라고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지금까지 영국의 젊은이들은 세계패션의 첨단을 창조해냈다。83년에도 이들은 기발한 착상으로 런던거리를 꾸며나갈것 같고 이런 현상은 전세계로 번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런던에 광범한 독자층을 갖고있는 시사지 타임아우트誌는 지난해 11월5일에 발행된 책표지에 문신을 새긴 젊은이 7명의 사진을 싣고 이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문신은 영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그것은 해군의 수병들 사이에서, 노동자계층의 젊은이들 가운데 혹은 불량청소년사이에서 명맥을 이어왔다。

예전의 문신은 옷을 입으면 가릴수 있는 것이었나。그러나 지금 유행하는 머리와 얼굴의 문신은 가려질수가 없고 성형수술로만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文身 英서 대유행

이들이 문신을 새기는데 대한 원인분석은 구구하다。『80년대 젊은이들의 심리를 말로써는 표현할 단어가 부족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하면 데일리메일紙는 지난 50년부터 10년단위로 변해온 패션의 한 유형일 것으로 파악하고있다。

영국에서는 만18세가 되지않으면 문신을 새길 수 없으나 이같은 연령제한에도 불구하고 남녀 젊은이들사이에 문신은계속 늘어가고 특히 뒷골목젊은이들 사이에서 현저하다。

이런 현상에대한 또다른 설명은 젊은이들이 오랜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부모세대와의 인연을 끊고자 본래의 얼굴에 인공적인 변화를 가함으로써 반항정신의 표현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다。이처럼 반체제의 심벌마크라고 보는 정치적견해가 있는가하면 개인인내심의 한계에대한 도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또 문신의 유행을 경제불황과 실업의 증가로 인해 누적된 불만이 돌파구를 찾은 결과로 보는 사회학자들도 꽤 많다。

이러한 풍조에대해 가장 부정적으로보는 사람들은 극우사상과 新나치즘대두의 조짐으로 보고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朴來富기자】

◇가마속의 젊은 인도남매。(제7회 아시아·태평양 사진컨테스트 입상작품등에서)

「貢女」악습 아직도 盛行

年 6천여명 寺院에 바쳐

印度의 카르나타카 지방

【뉴델리=聯合】

부드러운 겨울 ⑭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緒 作 / 金光培 畫 <318>

女記者 칼럼

張明秀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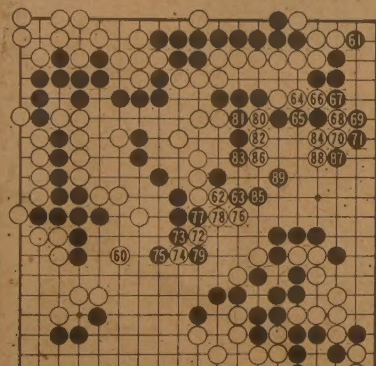
「폭력」은 이혼 사유인가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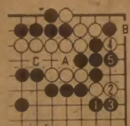
第7局 第7譜 160~189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張秀英〈1勝〉

黑(7段) 河燦錫〈1敗〉



黑, 처절한 大攻勢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
1560 Bayview Avenue Toronto,
Tel: (B)488-2444 (R)759-4560

533-2361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맛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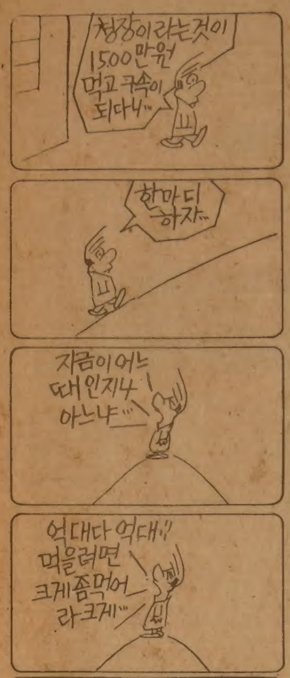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마쵸레스토랑
신장개업
□주류일체 취급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넓은 파킹장 교통 편리

□영업시간 : 오후4시 ~ 새벽1시
□주 소 : 4035 Gordon Baker Rd. (스카브로)
☎ : 498-1300

새로 개업한
일본식당
"KURI"
栗林
□각종 스시및 일본식요리
□부페식파티등 단체예약 환영
(100명이상 수용함)
□술 면허 있음
(새벽 1시까지 open)
◀ 영업시간 ▶
월~토 11 : 30AM-2 : 30PM
6 : 00PM-1 : 00AM
일요일 6 : 00PM-1 : 00AM
165 Bloor St. E.
(블루어×Church)
☎ : 960-1765

두꺼비 안의섭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 비디오
연속극, 가요, 문학,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失踪택시운전사 變屍로

廣州야산서 이틀만에 발견 칼 찔리고 목졸려

◇朴仁俊씨

[illegible] 실종 이틀만에 [illegible] 숨진시체로 발견돼 경찰이 택시강도 살인사건으로 수사에나섰다.

13일상오 8시30분께 경기 廣州郡西面甘一2里337 야산중턱에서 서울삼보운수 소속 서울1사1275호 포니택시운전사 朴仁俊씨(42·서울城北區石串洞338의37ㄴ)가 왼쪽등이 칼에찔리고 목이졸린채 숨져있는것을 주민 禹泰秀씨(59)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禹씨에의하면 이날 땔나무를 가지러 집뒤야산으로 올라가는데 돼지우리뒤 방공호안에서 朴씨가 숨져있었다는 것.

朴씨는 왼팔이 등뒤로 돌려지고 이마와 가슴등에 타박상이 나있었으며 구두는벗겨지고 옷은 그대로 입은채 모로누워 숨져있었다.

朴씨는또 점퍼 왼쪽이 예리한 칼로 찢겨있었으며 신분증이나 현금등 소지품은 하나도 없었고 목은 철사나 끈으로 묶인듯한 흔적이 나있었다.

朴씨의 시체가 발견된곳은 서울에서 城南으로가는 구국도에서 2백여m떨어진 곳으로 동네에서 약간 떨어진 야산이다.

朴씨는 지난12일 상오6시께 택시를 몰고 집을 나간뒤 돌아오지않아 가족들이 13일하오 경찰에 실종신고를 냈었는데 朴씨의 택시는 13일상오9시께 서울冠岳區奉天8洞1542의11 성인맨션뒤 야산(속칭 비행산) 중턱에서 오른쪽 앞바퀴가 펑크난채 버려져 있는 것을 등산객 李현삼씨(36·冠岳區新林本洞16의622)가 발견했었다.

수사에나선 경찰은 朴씨가 영업을 나갈때 가스63ℓ를 채워나갔고 이날 하오3시에서 4시사이에 회사지정주유소에서 다시 24.2ℓ를 넣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朴씨가 피살된 시간을 이날하오9시에서 10시사이로 보고있다.

경찰은 운전사 朴씨가 다른곳에서 2명이상의 범인들에 의해 살해돼 이곳으로 옮겨 버려진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또 朴씨의 시체가 발견된 개인호는 동네사람들조차도 잘모르는것을 이지역에 연고가 있는 범인들이 사전에 시체유기 장소까지 물색해 두었다가 朴씨를 살해, 유기한뒤 돈주머니와 택시를 빼앗아 서울로 잠입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것으로 보고 동일수법의 전과자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펴고있다.

◇운전사 朴씨가 피살체로 발견된 방공호. 경찰이 현장부근에서 유류품등을 찾고있다.

安昌和 前철도청장 拘束

「工事·人事뇌물」 1,580만원 받아
철도 建設국장-湖南 사무소장도

賂物준 業體간부14명 立件

◇安昌和前철도청장

◇崔炳吉건설국장

◇鄭原謨사무소장

전철도청장 安昌和씨(49·차관급·서울江南區論峴洞188의17)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구속됐다.

대검중앙수사부는 14일 安씨외에 철도건설국장 崔炳吉씨(55·이사관급·서울冠岳區南峴洞602)、호남공사사무소장 鄭原謨씨(47·서기관급·서울九老區高尺洞246)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뇌물을준 正友개발 사장安榮昇씨등 업체간부및 현장소장 14명을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한편 철도청 시설국장 金喜國씨(50·이사관급)와중부공사사무소장 張來煥씨(54·서기관급)등 철도공무원 10여명에 대해 인사조치토록 철도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의하면 安씨는 지난81년7월초부터 82년12월16일사이에 철도궤도 부설공사업체인 철도공업(서울龍山區元曉路1街46) 부사장 金雖坤씨(60·서울永登浦區汝矣島洞미성아파트)로부터공사감독및 준공검사때의 선처와 사업지원청탁과함께 1회에 50~1백만원씩 8회에걸쳐 모두5백50만원을 받았고 지난81년9월 중순부터 82년12월중순사이에는 함께 구속된 철도건설국장 崔씨로부터 『잘보살펴달라』는 명목으로 1회에 1백만원씩 4회에걸쳐 모두 4백만원을 상납받은것을비롯, 湖里역장金幸來씨(50·서기관)로부터 같은명목으로 2차례에걸쳐 3백만원, 水原역장崔秦文씨(43·서기관)로부터 1백30만원, 철도청기술연구소장卞相萬씨(47·부이사관)로부터 2백만원등 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등의 명목으로 모두 1천30만원을 받은 혐의다.

安씨가 공사업자와 부하직원들에게서 받은 뇌물은 모두 1천5백80만원에달한다.

또 철도건설국장 崔씨는호남선복선공사도급업체인 正友개발사장 安씨와 주식회사大宇상무 張永壽씨등 7개업체간부들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12월사이에 9차례에걸쳐 공사순서와 공사부분검사등 제반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함께 1회에 50~1백만원씩 모두 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崔씨는 이밖에 함께구속된 鄭原謨씨와 중부공사사무소장 張來煥씨등 부하직원들로부터 지난해8월23일부터 11월27일사이에 8회에걸쳐 정기업무감독때의 선처부탁과 함께 1회에 30~50만원씩모두 3백30만원을 상납받는등 업자와 부하직원들로부터 모두 8백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철도건설국 호남공사사무소장 鄭씨는 지난해 3월23일부터 11월17일사이에 7회에걸쳐 한라건설 현장소장 金成柱씨등 호남선복선 공사도급업체의 현장소장 6명으로부터 공사감독때 편의를봐달라는 청탁과함께 1회75~3백만원씩 모두 8백95만원을받은 혐의를받고있다.

한편 安씨는 철도청의이같은 비위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자 지난11일 사표를제출, 의원면직됐다.

검찰에 입건된 10개업체의 고위간부및 현장소장 14명은 다음과같다.

▲진흥기업전무李尙中▲코오롱건설이사李世激▲〃현장소장 鄭永植▲한국건업 사장 金宗培▲〃현장소장 閔孝植▲한라건설 전무 鄭泰壽▲〃현장소장 金成柱▲범양건영 사장 朴喜宅▲〃현장소장 尹相鎬▲주식회사大宇 상무 張永壽▲正友개발사장 安榮昇▲이화공영현장소장 金顯煥▲한일개발 현장소장 尹洪燮▲철도공업부사장 金雖坤

次官級구속은 충격 公職정화 意志보여

해설

차관급인 철도청장이 구속된것은 공무원범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는 정부의지를 재 확인했다는점에서 공직자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있다.

이번 검찰수사로 아직도 현업관서일각에는 구조적인 뇌물수수와 상납풍토가 남아있음이 드러났다.

지난해 연말 철도청비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 은밀히 내사를 벌여온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정초, 철도관계 건설업자와 관계국장, 현장 사무소장등 직원들을 연행, 조사가시작됐다.

검찰은 지난6일 安청장을 환문했는데 이때 安씨는 정보내용의 대부분을 부인한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도 安씨를 다음날 아침 바로 돌려보냈다.

7일 저녁엔 마침 방한중이던 英國교통부장관이 주최하는 만찬에 철도청장이 참석하게 돼있어 검찰이 이를 배려하기도 했지만 범죄확인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사가 진전됨에따라 뇌물액수가 늘어나자 검찰은 10일 고위층의 재가를 얻어 구속방침을 굳혔고 13일 다시 검찰에 연행된 安씨는 관련 증거를 순순히 시인하기에 이르렀다는것.

安씨는 처음 검찰에 불려왔을때 『나혼자 사표내는것으로 사건을 끝낼수없느냐』고 하소연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安씨에게 뇌물을 건넨 철도공업은 궤도공영과함께 철도궤도부설공사를 독점해온 우리나라에 단둘뿐인 업체.

궤도공영에서도 시설국장 金喜國씨에게 1백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사실이 밝혀져 아무리 의례적인 인사였다해도 부설공사의 의혹을 지울 수가없다.

궤도등 철도건설이 시설국 소관인데 반해 노반등 조빛굴착공사등의 순수한 토목공사는 철도건설국소관.

그러나 회사실정에 맞춰 미리 시달된 공사구간순서나설계를 변경하는데있어 까다로운 승인과정을 피하기 위해 뇌물이 오간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부분적인 준공검사때의 선처명목으로 뇌물이 건네진점으로 보아 역시부실공사의 의구심을 떨쳐버릴수없다.

金錫輝검찰총장이 정초에 신년사를 통해 『검찰의 처단적 기능을 활성화하겠다』한 것은 이번 安씨의 구속으로 새삼 확인된 셈이다.

검찰의 인지(認知)사건 수사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것은 분명하다. 【崔奎植기자】

大法院長 前비서관도

外貨密搬出사건 관련 2천7백50만원 받아

대검중앙수사부는 14일 대법원장前비서관 裵鐘用씨(56·서울江南區盤浦洞793)를 변호사법및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전법률공론사 총무부장 吳秀吉씨(41·서울麻浦區望遠洞462의1)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裵씨는 지난5일 사표를 제출한후 그동안 다른 수사기관에 연행돼 조사를 받아오다 13일하오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으며 裵씨와 함께 사표를냈던 모대법원판사 전 비서관 李明來씨(46)는 이번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의하면 裵씨등은 지난해 8월4일 기흥관광대표 한태규씨로부터 『거액외화 밀반출사건과 관련, 서울형사지법南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있던 음식점 대원각주인 李京子피고인(42·여)을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달라』는 부탁과함께 한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는것.

이들은 또 82년8월19일역시 외화밀반출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받고있던 李京子피고인의 사촌동생인 李在完피고인의 동생 李在京씨로부터 『형이 보석이되도록해달라』는 부탁을받고 9월6일 李在京으로부터 1천만원, 李在完으로부터 1천만원등 모두 2천만원을 받은혐의다.

이들은 3명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을 裵씨가 2천7백50만원, 吳씨가 2백50만원씩을 나눠가졌다.

또 裵씨는 지난 77년8월부터 79년3월까지 6회에걸쳐 南大門시장에서 미화2만4천달러를 환전, 생질 독고문호씨를 통해 미국에 이민가있는 누나 裵모씨(59·버지니아주스프링필드시)에게 송금한것을 비롯, 지난해 9월하순께도 2회에걸쳐 삼각지부근 암달러상으로부터 1만달러를 환전, 11월중순께 딸을통해 역시 누나裵씨에게 송금하는등 모두3만4천달러를 해외로 도피시킨혐의도 받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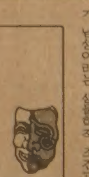
한편 裵씨등에게 돈을건넨 李京子피고인과 李피고인의 사촌동생 李在完피고인등은 미국에있는 친척에게 미화22만달러를 불법유출시킨 혐의로 지난해 7월3일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가 李京子피고인은 8월16일, 李在完피고인은 9월13일 각각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그후10월18일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1억9천4백20만원과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추징금1억9천4백20만원씩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계류중에있다.

검찰은 『裵씨등이 李피고인등으로부터 돈을 받은후 李피고인들이 보석으로 풀려난것은 사실이나 裵씨등이 사전담당재판부에 돈을 건네거나 청탁한일은 전혀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脫오빠」 팬레터 하루千3백통 받는 趙容弼

"내노래 대상은 모든 年齡層인데…"



인기 절정의 가수 趙容弼(33·사진)의 공연장에는 늘 앰뷸런스가 대기한다. 열광하는 10대 소녀들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용필이 오빠」를 목놓아부르다가 혼절하면 병원으로 싣고가야 하기때문이다.

趙容弼이 민중의 보편적 정서를 노래하는 가수인지 아닌지를 잘라말할수는 없다. 하나 그가 늘 「극한」을 노래하는 사람인것만은 확실하다. 그는 여백과 휴식을 용납치못하는 맹렬성을 가지고 흐느끼고 절규하고 폭발한다.

이같은 「극한」에서의 폭발은, 그가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조건과 더불어 그의 인기를 버티어주는 팬의 주력부대가 10대소녀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무리없이 설명해주고있다.

하루에 그의 아파트에 배달되는 1천3백여통의 팬레터중 80%가 「용필이오빠」다.

집의 오빠에게도 말 못할듯한 은밀한사연과 고민, 동경과 하소연들이 「용필이오빠」앞에서는 봇물터지듯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있다.

대중가수는 민중의 감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어떤 예술가보다도 힘센 존재라고 할 수있다. 더구나 趙容弼처럼 「공격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수의 영향력과 파워는 대단하다.

그러나 아직도 기억되고있는 몇몇 대가수들은 민중의 정서를 공격하거나 지배하는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그들은 대중의 가슴 속에서 표현을 얻지 못한채 잠재하고있는 情恨들을 「노래」로 대신 승화시켜주곤 하였고 지금도 그들의 노래가 널리 불려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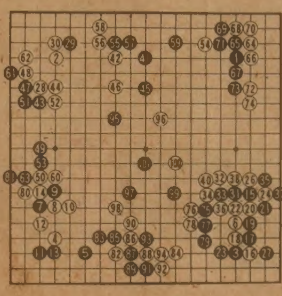
趙容弼자신도 「용필이오빠」로 불려지는 10대소녀의 우상으로 인식되는 것이 탐탁치 않은 눈치이고 대답도 싫드랑 하였다. 그는 『모든 연령층이 내 음악의 대상이다』 또는 『민족의 恨을 노래하겠다』며 자신의 음악적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는 현재의 스타일을 갖기 위해 초인적인 노력을 해온 가수로 알려져있다. 지금도 밤11시부터 새벽5시까지 악보와 씨름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이같은 각고의 노력으로 가야할 길은 노래로서의 대중적 보편성을 획득, 그의 이름밑에 붙어있는 「오빠」를 떼어버리는 것이라는점을 그자신이 잘 알고 있는듯했다. 【徐肇淑기자】

趙名人、勢·實利 양면작전
棋聖戰 1局이틀째

【東京14日=宋孝彬특파원】14일 日本 닛코(日光)시에서 다시 계속된 제7기 棋聖戰도전 7번승부 제1국의 이틀째 대국에서 도전자 趙治勳名人(26)은 장고를 거듭하면서 계속 실리작전을펴고있는 후지사와(藤澤秀行·58)棋聖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첫날 바둑은 趙名人의 세력, 후지사와棋聖의 실리로 평소 두기사의 기풍과 정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틀날 대국에서 趙名人은 실리를 버는 한편 두터운 세력을 집으로 만드는 양동작전을 전개, 계속 실속만 차리려는 후지사와棋聖을 교란시키고 있다. 趙名人은 기수가 진행된현재 실리에서는 떨어지나 두터운 세력을 잘 활용할 경우 근소한 차이로 서전을 장식할수있을 것으로 전문기사들은 보고있다.


◇제7기 棋聖戰 7번승부 제1국 (1~101)
白 도전자 趙治勳名人
黑 棋聖 藤澤秀行9단
◇제5집반공제·제한시간 각9시간 ※ 39는 24의곳.

撞球場여주인 被殺

【慶州】14일상오8시 慶州市皇五洞233 국일당구장 내실에서 당구장주인 이경순씨(여·38)가 입이 스타킹으로 틀어막히고 손발이 전기줄로 묶인채 숨져있는것을 같은방에서 잠자던 당구장종업원 김정심양(20)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싱가포르B型 毒感주의보
1~2월새 流行할 가능성커

보사부는 지난연말 전국에 발곡A형 독감주의보를 내린데 이어 14일 신형 싱가포르B형독감 주의보를 발표했다. 보사부는 새해들어 싱가포르·대만·홍콩·필리핀·인도네시아등지에서 싱가포르B형 독감이 유행,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경고에따라 이날 싱가포르B형 독감주의보를 내린것이다.

보사부는 싱가포르B형 독감이 1월말과 2월초사이에 유행할 가능성이 많다고 밝히고 이독감은 과거 우리나라에 들어온적이 없는 신종독감이기때문에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가 여행자들에의해 일단 국내에 침입하면 대유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제 大入면접
상당수가 缺試

대학진학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고사가 14일 전국 각대학별로 실시됐다.

수험생들은 이날 대부분 제시간에 입실을 끝내고 지원학과의 교수로부터 면접고사를 치렀다.

그러나 복수지원에서 단수지원으로 바뀐 올해에는 각 대학마다 상당수의 결시생이 생겼는데 이는 복수지원을했거나 배짱지원을한 수험생들이 자신이없자 결시한것으로 보인다.

서울大는 이날 각대학별로 설치된 1백60개 고사장에서 하오 1시부터 면접고사를 치렀는데 자연과학대 60여명, 법대30여명, 자연과학대 20여명, 경영대 10여명등 1백30여명이 결시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대, 사범대, 음대등에는 결시자가 거의없었고 가정대, 농대등의 미달학과에도 결시자가 없었다.

前국회副議長 趙瓊奎씨

4대 국회부의장과 2、3、4대 국회의원을 지낸 趙瓊奎씨가 13일하오7시 경남馬山시내 동강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 발인 18일상오9시 병원영안실. 장지 咸安郡代山面長岩里 선영. 연락처 ⑥4319 61.

카바레·고고클럽등 50坪넘어야營業허가
보사부

카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등이 앞으로는 무도장을포함, 50평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영업을 할수있게됐다.

보사부는 14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 이들 3가지업소를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새로 규정하고 이같은 기준에 미달된 업소는 연말까지 시설을 갖추도록 한뒤 이를 어길경우 내년부터는 영업을 하지못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절임식품중 단무지는 오는7월부터 반드시 규격품인 위생상자를사용, 운반토록함으로써 종전의 가마니, 부대등 비위생적인 운반처리를하지못하게했다.

또 닭고기전문판매업소의 시설기준을완화, 냉장진열장만을 갖추면 15일부터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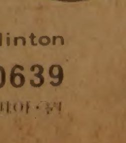
보사부는 이와함께 불량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 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기간내에 이행하지않거나 행정처분만료1년내에 당초 위반사항이 재적발될경우 제조가공업소는 품목 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판매·운반·처리업과 식품접객업소는 영업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키로 했다.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LA 金메달을 쏘겠다

20회 한국新人體育賞 "최우수" 영예의 弓道 申貞順양

"이제부터 새出發 「큰賞」에 보답 세계적 弓士로 뜀박질 할래요"

『생각지도 않았던 큰상을 받고보니 어깨에 쇠뭉치를더어 놓은듯 짐이 무거워요。앞으로 더욱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 훌륭한 선수가 되겠읍니다』

光州에서 올라온 아버지申永朝씨(49)와 어머니 鄭三禮씨(45)의 축하속에 최우수 신인상 상패를안은 申貞順의 얼굴엔 84년 LA올림픽을 겨냥한 궁사답게 굳은 의지가 서렸다。

지난11월 전국종합선수권대회서 한국신기록2개(50m싱글·더블)와 비공인 세계 신기록1개(30m싱글)를 세워 스포츠계를 깜짝놀라게 했던 申貞順。

그는 30m싱글서 때린 3백55점의 대기록이 요행이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주겠다고 다짐한다。

새해들어 처음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돼 16일 泰陵선수촌에 입촌하는 申貞順은『선배언니들에게 망신당할까봐 요즘은 더악착같이 연습을한단』며 활짝웃었다。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부족한게 흠이에요』

자상하게 지도해주던 선배 朴珍姬코치마저 道소년체전팀 코치로 옮겨간후 申貞順은 코치없이 오히려 1학년 후배들을 지도하며 어려운연습을 하고있다。

상오에 2시간씩 팔굽혀펴기、달리기등 체력훈련을하고 하오 3시간반 기술훈련을한다。

이제 대표팀에들어가 훌륭한코치의 지도를 받게된것이 무척 다행스럽다고 기뻐한다。

申貞順은「딱딱한 자세」가 가장먼저 고쳐야할 자신의 약점이라고 지적하며 84년올림픽의 금메달을향해 열심히 활을 당기겠다고 말한다。

한편 남자장려신인상을받은 레슬링의 魯炅宣은 자그마한 키(1m55)의 앳된얼굴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소속팀 주택공사의 金益鍾코치와 함께 나온 魯炅宣은 『84년올림픽도 중요하지만 우선 올9월 소련에서열리는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서 우승하여 신인상을주신분들에 보답하겠다』고 다부진 결의를 보였다。

魯는『근력、지구력、순발력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팔의 힘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다는것。

여자장려 신인상을받은 여고생 국가대표 成貞兒(농구)는『국가대표 처음 출전한 뉴델리 아시안게임서 중공에 패해 무척 분했다』며 신인상을 계기로 자만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

成貞兒는 선배 언니들을 도와 中共을 물리치는게 83년의 꿈이라고 말했다。 【兪奭根기자】

◇활짝핀 웃음속엔 굳은 意志가… 金珍浩의 뒤를이어 혜성처럼 나타난 여자양궁의 호프 申貞順。84년 LA올림픽 金메달을 목표로 연습하겠다고 말한다。

장려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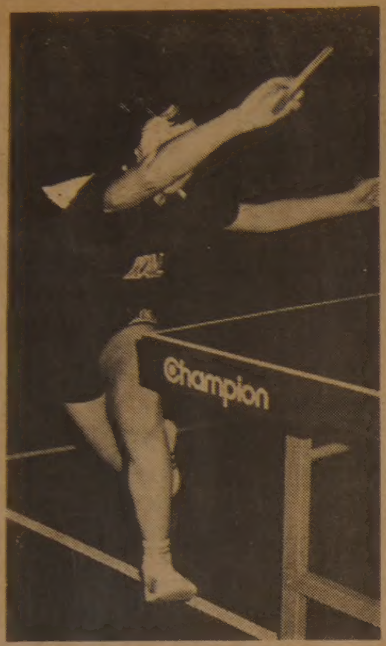
"9월엔 蘇聯땅에 太極旗를" 레슬링 魯炅宣

"쑥쑥 자라나 中共킬러 될터" 농구 成貞兒

◇한국일보 洪惟善발행인이 최우수신인 申貞順에게 상장을 수여하고있다。

男복식 趙東元·盧潤寬 우승

종합卓球 女복식선 梁英子·金淑조



◇여자개인단식1회전에서 KAL의 [illegible]이 安東여고 李賢珠를 맹공격하고있다。

제36회 전국종합탁구선수권대회 개인복식 패권은 남자부서 趙東元·盧潤寬조(국정교과서)、여자부서 梁英子·金淑조(이일여고)가 각각 차지했다。

13일밤 끝난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국가대표주전인 梁英子는 金淑과 한조를 이루어 濟州女商의 동료선수 李桂仙·金美延조와 격전을 펼친끝에 3—1로 승리、종합선수권대회 첫타이틀을 차지했다。

梁英子·金淑조는 첫세트를 13—21로 빼앗긴후 21—19、21—15로 두세트를 만회、여전리드를잡고 제4세트에서 6차례의 듀스를 거듭하는랠리끝에 27—25로 앞서、승리를 결정지었다。

남자복식에서는 노련한 趙東元·盧潤寬조가 패기에 넘친 고교신진安宰亨·薛鎭泰조(부산 광성공고)를 3—1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田永鎬·鄭聖秀조(성무)와 일진일퇴의 공방끝에 3—2로 승리、우승했다。

安宰亨·薛鎭泰조는 우승문턱에서 물러섰으나 3회전에서 80년 우승조인 국가대표 金琉澤·李在勳조(제일합섬)를2—0으로완파、실업세에 큰 위협을 주었다。

14일 속행된 남녀개인 단식경기에서는 지난해 여자부챔피언 李美雨(제일모직)를 비롯、安海淑 黃男淑(동아건설)、白順愛 李眞淑(대한항공) 鄭庚子 朴末粉(부산코카콜라) 尹璟美(서울신탁)등이 예상대로 3회전에 진출했다。

양핸드의 강스트로크로 지난해 결승까지 진출 돌풍을일으켰던 金淑姬(근화여고)는 이날 2회전에서 李香淳의 끈질긴 커트수비에 21—17、21—8로 자멸했다。

남자개인단식에서는 고교랭킹 1위 安宰亨과 薛鎭泰(광성공고) 盧潤寬(국정교과서) 李昌勳 鄭聖秀(성무)등이 3회전에 진출했다。

◇제3일전적

▲남자개인복식결승

趙東元·盧潤寬(국정교과서) 3 (21—18 21—7 18—21 21—18 20—22) 2 田永鎬·鄭聖秀(성무)

▲동여자부

梁英子·金淑(이일여고) 3 (27—25 21—15 21—19 13—21) 1 李桂仙·金美延(이일여고)

力道상비군 新人 15명으로

전용訓鍊場도 신축

◇趙容時회장

대한역도연맹(회장 趙容時)은 84년 LA올림픽에대비하여 15명의 신인으로 상비군을 구성、2백50일간 합숙강화훈련을 실시키로했다。역도연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4월중으로 전용훈련장을 신축키로했다。

뉴델리 아시안 게임서 금메달2개를 획득했던 한국역도는 올해에 국제트레이닝캠프(6월·유고)、판노니아국제대회(헝가리·6월)、제9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이집트·7월)、제15회 아시아선수권대회(시리아·8월)、제37회 세계선수권대회(소련·10월)등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역도연맹은 趙容時회장이 뉴델리아시안게임때 아시아역도연맹 부회장으로 피선된 것을 계기로 금년에도 스포츠외교를 강화할 방침이다。

漢大·高大 오늘 爭覇

大學미식축구

【釜山=金仁善기자】漢陽大와 高麗大가 제3회 전국대학아메리칸풋볼동계선수권대회 패권을놓고 15일하오1시 맞붙게됐다。

14일 九德경기장서 벌어진 대회4일째 준결승전서 漢陽大는 투지를앞세워 海洋大를 14—0으로 꺾었고、高麗大는 延世大와 치열한 접전끝에7—6으로힘겹게이겼다。

高麗大는 이날 첫쿼터10분께 QB崔周衍이 상대수비를 제치고 오른쪽측면을돌아 터치다운、6점을 선취했다。이어 추가공격에서도 RB任炳敎가 플레이스킥을 성공、1점을 보태 7—0으로 리드。반격에나선 延世大는 제2쿼터8분께 QB 姜斗勳이 오른쪽측면돌파로 터치다운、6점을 만회하고 중앙돌파로 추가공격을 시도했으나 高麗大수비에 눌려 1점차로 물러났다。

漢陽大는 海洋大와의 경기서 제2쿼터2분께 FB孫仁洛이 중앙돌파로 터치다운、6점을얻고 3쿼터11분께 TB羅昌一이 과감한 중앙돌파로 터치다운、6점을 보탰으며 추가공격서도 FB孫仁洛이 측면돌파에 성공、2점을 추가하여 승세를굳혔다。3、4위전은15일11시에열린다。

◇준결승전적

고려대 7—6 연세대

한양대 14—0 해양대

◇「절망은 없다」 白雪누비는 盲人선수

美캘리포니아州 버클리출신의 카렌·로즈마린양(35)이 12일 제2회연례 커크우드 전국맹인 알파인 스키선수권대회 활강경기에서 결승선을 넘은후 쾌재를 부르고있다。23세때 시력을잃은 로즈마린은 물체를 희미하게밖에 식별할수가 없다。【커크우드(美캘리포니아州) AP=聯合】

여자實業 핸드볼 15일부터 3일간

전국여자 실업핸드볼대회가 15일부터 3일간 서울 奬忠학생체육관에서 열린다。

3월21일부터 일본주요도시를 순회하며 벌어질 제11회 韓國여자 실업교환경기에 출전할 한국대표팀 선발전을 겸한 이번대회에는 지난해 우승팀 造幣公社와 光州시청 仁川시청 全州시청등 4개팀이 출전、더블리그로 승부를 가린다。

野球 아메리칸리그 4월3일 시즌오픈

【뉴욕AP聯=本社】美國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는 오는4월3일 캔자스시티·로열즈—볼티모어·올리올즈、클리블랜드·인디언즈—오클랜드·애슬레틱스、시카고·화이트삭스—텍사스·레인저스의 3게임으로 시즌오픈된다。

나머지 팀들은 5일 터론토·블루제이스—보스턴·레드삭스、뉴욕·양키즈—시애틀·머리너스、밀워키·브루어즈—캘리포니아·엔젤스、디트로이트·타이거스—미네소타·퉌즈전으로 첫경기를 시작、14개팀이 총1천1백34게임을 벌이게된다。

張翼龍회장 유임 陸上경기연맹

대한육상경기연맹은 14일 체육회강당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열고 張翼龍회장을 유임시키는 한편 집행부임원일부를 교체했다。이날 총회에서 확정된 83년도예산은 8억6천여만원으로 지난해 7억4천7백여만원보다 약1억원이 증액됐다。

92년 夏季올림픽 프랑스、誘致계획

【파리聯=本社】프랑스는 근대올림픽운동창시자 피에르·드·쿠베르탱 남작이 스포츠의 근대화·국제화를 역설한 名演說의 1백주년을맞는 오는 1992년 夏季올림픽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넬송·페로 프랑스올림픽위원회위원장이 12일 밝혔다。

페로위원장은 프랑스가 14일 美로스앤젤레스에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올림픽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유치신청이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과 피에르·모로와 수상의 지지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IOC·NOC합동회의 오늘開幕

LA五輪대책 협의

【로스앤젤레스=李台永특파원】84년 LA올림픽에 앞서 대회조직 전반문제를 다루게될 IOC집행위원회와 NOC총회및 두기구의 합동회의가 15일(한국시간) LA밀트모어호텔에서 개막된다。

22일까지 계속될 회의에서는 IOC집행위원회 국제경기연맹(ISF) 집행회의와NOC집행위원회및 총회、IOC각분과위원회、IOC、NOC합동회의등 순으로진행、LA올림픽집행운영계획、경기장시설、경기일정、선수보호와 교통문제등을다루고올림픽각국참가보도진 배정、인원조정、프레스 센터 운영계획、TV중계관계등을 협의한다。

15일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이곳에서열려 정관개정문제등을 논의한다。鄭周永대한올림픽위원회(KOC)위원장은 14일 이곳에 도착、앞서온 金世源KOC부위원장、金溎체육회부회장、崔萬立KOC명예총무와 함께 각종 회의대책을 협의했다。

튀니지 國防長官 李체육장관 예방

88올림픽등 환담

李源京체육부장관은 14일상오 정부가 초청한 슬라이딘·발리 튀니지 국방장관겸 튀니지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고 양국스포츠협력관계와 88서울올림픽에 관해 환담했다。

李장관은 88서울올림픽에 튀니지는 물론 아프리카 모든나라들이 적극 참여할수있도록 협조해줄것을 당부했다。

프로복서 15% 頭腦손상 증세

美의학협회 보고

【시카고UPI=聯】권투가 인간의 두뇌에 해를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美國의사들이 13일 밝혔다。

미국의학협회(AMA)는 이날 현재 프로권투선수중약15%가 癡呆症·기억상실·발음불량·경련·步行異常등의두뇌손상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징후는 은퇴한 후에 급진전한는것같다고 지적했다。

AMA는 또『권투는 위험한 스포츠이며 궁극적으로사망이나 장기적 두뇌손상의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같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聯邦정부의 행정적 규제와 엄격한 의료감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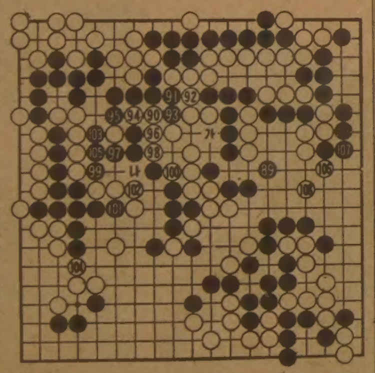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7局第8譜 189~205 (각5시간·덤5집반)

白(6段)張 秀 英〈1勝〉

黑(7段)河 璨 錫〈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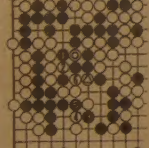


중앙白대마는 黑3점을 잡고있지만 아직도 미생마다。이것을 노리는黑89가 처절한 공격인데 白은「가」의곳에 어떻게 1집을 내느냐가 문제이다。

도합 4시간20분이나 소비한 張6단은 다시 12분을 생각하고 白90서부터 집을 만들기 시작했다。

黑91,93은 어디까지나 그1집을 방해하는 강수。그러나 이무렵 河7단은 또하나의 노림수를 잊지않고 있었다。黑97에서 99로 두어 일단 좋았던 黑대마가 오히려 白을 잡고 살아가는 일로서 白100으로 살려주는 댓가는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토록 어마어마한 일대공방전은 예상밖의 변화를 불러내고 대세는 지극히 미세하게 되었다。白100의 수로「나」자리를 끊는 반격은 그러나 참고도처럼 黑7로①의곳을 이어도역시 白이 수부족이다。여기서 黑은절호의 결정타를 놓쳤다는 중론인데 과연 어떨까。 【一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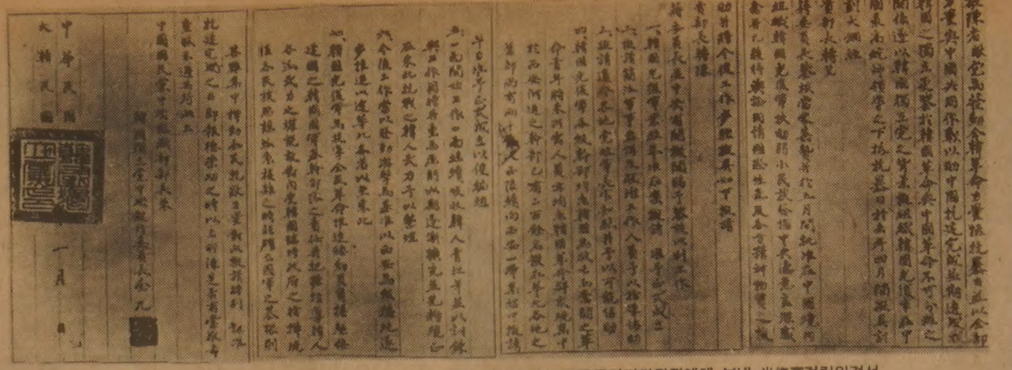
예상밖의 大變化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SPECIAL SALE
특별할인
TELEFUNKEN
BRAUN
아카데미 T.V. STEREO
EAST MORNINGSID MALL
255 MORNINGSIDE AV. SCAR.
KINGSTON RD. & MORNINGSIDE
☎ 282-2820
WEST FINCHWEST MALL
3467 WESTON RD. WESTON.
WESTON & FINCH
☎ 745-5555

金九선생 親筆로된 光復軍文書 첫공개

해방 37년이 지나는 동안 韓國獨立運動史에 관한 국내외 자료들은 대부분이 발굴·정리된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未발굴 영역에 묻혀있는 자료와 내용또한 그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는것이 현실이다. 현재도 臺灣과 美國 등지에서는 관계학자들이 자료발굴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기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다른 史實과 資料가 드러날 소지는 많다. 이미 이들학자들에 의해 史實의 내용은 밝혀진지 오래지만 40여년전 중국대륙에서 우리의 光復軍이 탄생할당시의 文書25점과 영영 망각속에 묻혀버린 뻔 했던 어느 烈士의 얘기가 최근 臺灣에서 새로 발굴됐다.



◇1940년 한국독립당집행위원장이었던 金九선생이 朱부장을통해 蔣介石중국국민당위원장에게 보낸 光復軍건립의견서。

故蔣총통측근 朱장군 비서보관
臺北政治大 胡春惠교수가 입수

◇국민당 조직부장이었던 朱家驊장군의 비서方志懋씨로부터 25점의 자료를 얻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胡春惠박사。

光復軍관계의 文書는 1940년당시 蔣介石을 위원장으로한 중국 國民黨에서 조직부장이었던 朱家驊장군이 소장했던것으로 그가 1963년 70세를 일기로 他界한뒤 대륙시절부터 그의 비서였던 方志懋씨(현재 타이페이에 거주)가 소중히 보관해온것.

이 중요한 문서들을 臺北의 政治大學역사학과 주임교수인 胡春惠박사가 3년간의 끈질긴 간청끝에 얻어 낸것이다.

문서의 목록은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장 金九가 光復軍의 성립을위해 朱家驊에게보낸 의견서 ▲중국국민당중앙조직부 朱家驊부장이 한국의독립투사들을 돕기위해 蔣介石총재에게 지원을 요청하며 올린 건의서▲金九선생이 물가앙등으로 경비가 모자라 보조금의 증액을 요청한 私信▲그밖에 각종 영수증등 모두, 25점.

이가운데 일부는 국내학자들에 의해 이미 복사입수돼 판독과 분석, 史實의 정리가 끝났지만 金九선생의 광복군 성립의견서, 독립투사들의 경비보조에 관한 私信등은 처음 보는 것들이다.

특히 朱家驊의 소장자료들중 일부는 국내학자들에 의해 原文또는 복사판으로 소장했던 것을 3년전 서울 退溪路의 자료보관사무실화재로 소실돼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몇점과 함께 국내에서는 다시 옛모습으로 보게 된 셈이다.

이중 1940년5월 光復軍이 탄생할 당시의 金九선생의건의서를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전국민의 힘을얻어 일본에 항거하기위해 이곳에서 중국의독립투쟁을 돕고 있는것이며 아울러 한국의독립을 달성할 것을 기약합니다. 우리는 이를위해 작년4월에 계획과 大綱을 마련해보았읍니다. 앞으로의 활동내용을 다음과같이 결정했읍니다.

첫째, 한국광복군은 이미 案을 작성했으니 정식설립을 허가해주십시오. 둘째, 군사참모및 정치공작원을 뽑아 파견하고 지도협조를 요청합니다. 셋째, 각지의 黨·政·軍장관에게 이 내용들을 통보하여 가능한 협조를 부탁합니다.

네째, 한국광복군 각급 간부는 모두 한국인입니다. 국가의 멸망을 막기위해 분투하는 혁명청년들로, 장래 필요한인원도 역시 한국인입니다. 組를 편성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주십시오. 다섯째, 한편으로는 활동을개시하고한편으로는 한국청년을 흡수하여 함께 활동할것입니다. 현재 東北에서 항전하고있는 한국인 武力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앞으로의 공작은 유격

타이페이=金湧精 외신부장

國民黨 간부에보낸 組織의견서
資金지원 요청한 私信등도 함께

을 기본으로 하고 西安을 근거지로삼아 華北省으로밀고나가 滿洲에 이르고자합니다. 일곱째, 한국광복군은 全民族革命을 제의하며 倭를 몰아내고 건국하는 국군기간부대가 될것입니다—

史家들은 바로 金九선생의 이같은 제의가 蔣介石총재에게 즉시 전달됐고 그해(1940년) 5월 광복군의 建軍이 허락됐으며 9월17일에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기술하고있다.

그러나 그후 당파의 분쟁이 군에까지 확산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하자 蔣총재는『한국인들간의 武力충돌이 이뤄지지않을경우 黨·政의 합작도 안될뿐아니라 한국독립운동에도 방해가 될것이다』고 지적, 다음해인 41년10월30일에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를 군사위원회에 예속시키고 참모총장이 이를 장악토록 명령하게됐다.

이러한 곡절을 겪은끝에 42년 5월15일 한국광복군총사령부에서 副司令직을 신설, 조선의용대장 金若山을 부사령으로 임명하면서 의용대를 광복군에 편합하게됐다.

未공개문서들가운데 또하나 주목할만한것은 당시 광복군의 생활이 몹시 어려워 國民黨에대해 지원비증액을 요청한 私信내용이다.

역시 金九선생이 당조직부장인 朱에게보내 蔣총재에게 전달되도록 했던 편지인데 그일부를 보면 『우리광복군의 생활비를 지난해 12월부터 넉넉히 보내준데 감사합니다. 貴中央이 매월 6만원(法幣)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유지되었으나 요즘 물가가 엄청나게 앙등하여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특히 重慶市부근의 한국교민 3백40명의 생활, 의약품비용이 시급하오니 앞으로는 매달 14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실것을 요망합니다』고 되어있다.

이같은 文件이 발견된데대해 胡박사는『史實의 주요내용은 이미 밝혀진것이기때문에 한국독립운동史의 흐름에 변화를 줄수는 없지만 당시 광복군의 성립을 위해 얼마나 빈번한 절충과 연구가 진행되었던가를 다시한번 확인하게됐고 특히 독립군에대한 경비(經費) 지원관계는 문서에 따라 화폐의 종류가 다르고 당시의 물가기준이 명확치 않기때문에 분석에 혼선을 가져왔던것을 이제 그 의문을 어느정도 해소시킬수 있게됐다』고 지적했다.

두殉國志士 史實도

國內記錄없는 崔博學·黃永哲烈士

국방부발행 책속에 실려 日走狗 암살失敗…처형돼

아직까지 국내에 알려진일이없을뿐 아니라 기록조차없어 잊혀져온 독립운동투사 두 사람의 史實이 밝혀지고있다.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두烈士의 얘기는 자유중국 국방부에서 非賣品으로 펴낸 어느책속에 들어있음이 알려져 비로소 공개된것이다.

지난66년에 초판을인쇄한뒤 76년에 재판을찍어낸 이책은 「戴雨農先生年譜」란 제목. 戴雨農이란 사람은 1940년대 蔣介石의 국민당정부에서 정보책임자로 일했던 장군인데, 그가 죽은뒤 일기가 집에서 발견되면서 자유중국의 국방부정보국이 책으로 엮은것이다.

바로 이책의 162、163페이지에 한국인崔博學씨와 黃永哲씨의 얘기가 기술돼 있는것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당시에 特공대의 간부로 있으면서 직위를 남용, 주민들의 재산을 몰수했으며 日敵에게 헌신적인 충성을 다했던 李逆이란者가 있었다. 그는 따로 杭州에 무선전신臺를 설치하고 아군의 군사[illegible] 일본인들을후방에 잠입시켜 정보를 제공해주기도했다. 그(李逆)가 어떻게 경계를 철저히 하는지 증거를 잡기전에는 체포할수도 없었고 또 그를 쉽게 접근할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인재를 물색하던중 한국인 志士 崔博學이란 사람을 찾았다. 崔씨는 일본해군후관사무처의 통역관으로 일본인들과 함께 일하고있었으나 마음은 항상 적개심에 불타 이미 우리의 공작에 참여하고있었다.

5월10일 그를 조용히 불러 李를 없애는방법을 물었는데 崔씨는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다. 엿새후인 16일하오9시에 崔志士는上海의 狄思威路 일본해군사무처에서 무관 藤田과 회담하고있는 李의 [illegible]하다가 숨겼던 [illegible] 李를향해 6발을 쏘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藤田만부상하고말았다. 이때 자리를 같이했던 고급군관 川崎가 총을뽑아 崔씨의 어깨를쏘았고 그자리에서 체포된崔씨는 며칠후 사형에처해졌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崔씨와 같은고향으로 평소 친하게 지냈던 黃永哲씨가 애통해한끝에 崔志士의 유지를 잇기로 결심, 날짜는 기억이 없지만 어느날 저녁 8시에 李가 藤田을 문병하러 虹口福民醫院에 가기로된것을 알고 병원문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예정시간보다 조금늦게 李가도착했고 차에서 막내리려는 순간 黃志士는 총을 뽑아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때도 너무 당황한 끝에 李를 명중시키지 못했고 즉각 달려온 적군에 둘러싸여 사살당하는 운명이되고 말았다.

崔·黃 두 한국인 志士의 뜻은 그밖의 많은 동료들에게 전파되어 얼마후 李는 결국 한국인의손에의해 독살되고 말았다』

戴씨의 일기장은 보통 하나의 사건을 반페이지에 줄여 기술하고있지만 崔·黃 두 한국인에 대해서는 2페이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름뒤에 志士를 붙이고있다.

1940년대에 上海에서 일본해군후관사무처에 징용돼 일하던중 동포출신의 일본밀정을 사살하려다 숨진 崔博學·黃永哲志士, 이들의 고향은 어디 이며 가족, 후손은 누구인가.

한국일보 詩壇

南在萬의 까치소리

金 春 朗

까치소리를 듣고 해종일 洞口나무를 바라보며
정작 보낼 이 없고 더욱 올리도 없는
소식 하나 기다리는 날
정말 버선발로 뛰쳐나가 맞을 기쁜소식이란
그대의 詩를 만남이다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 都心의 빌딩숲에 걸려
쩔쩔 매고있던 어느날 서울의 낮달처럼
창백한 그대의 精神
아직도 堂山 소나무 처럼 고향을 지켜서서
두엄으로 푹 삭은 情을 가진 친구와
거미줄 처럼 얽히고 설킨 法網속을
진짜 法없이도 살수있는 고향 친구 하나 있음은
그대와 나의 마지막 위안이 아니겠는가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기쁜 소식 하나
오지않는 날을
진짜 버선발로 뛰쳐나가 맞을 소식이란
오늘 내 그대의 詩를 만남이다.

1982·11·24

海外演藝화제

올 最高의 스타는

아카데미賞 31日에 申請마감

사관과 紳士도物望

◇…1월31일 신청마감돼 2월17일 발표될예정인 아카데미영화상 후보작품및 후보자를둘러싸고 할리우드에서 화제가 만발하고있다. 특히 올해누가 최고의 스타가 될것인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E·T」「外界人」의 주인공이 최고 스타가 될 경우 그는 배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투시」에서 여자로 출연한 더스틴·호프먼과 「빅터·빅토리아」에서 남장으로 출연한 줄리·앤드루즈에게 남우주연상을 줄것인가 여우주연상을 줄것인가도 흥미거리. 부문별 예상 후보작(자)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작품상=E·T, 간디, 투시, 버딕트, 사관과 신사, 소피의 선택, 실종, 빅터·빅토리아, 행운의해, 가프의 세계

◇최우수감독상=스티븐·스필버그(E·T) 리처드·아텐보로(간디) 시드니·폴락(투시) 시드니·루메(버딕트) 테일러·핵포드(사관과신사)

◇최우수남우주연상=벤·킹슬리(간디) 더스틴·호프먼(투시) 폴·뉴먼(버딕트) 피터·오툴(행운의 해) 잭·레먼(실종) 리처드·기어(사관과신사) 로버트·미첨(챔피언시절) 제르미·아이언스(달빛) 미카엘·케인(죽음의 덫)

◇최우수 여우주연상=메릴·스트리프(소피의선택) 줄리·앤드루즈(빅터·빅토리아) 시시·스페이섹(실종) 제시카·렌지(프랜시스) 데브라·윙거(사관과신사) 다이앤·키튼(숏더·문)

◇최우수남우조연상=로버트·프리스톤(빅터·빅토리아) 루·고세트(사관과신사) 헨리·토머스(E·T)

◇최우수여우조연상=제시카·렌지(투시) 글렌·클로스(가프세계) 디·웰레스(E·T) 레슬리·안·워런(빅터·빅토리아)

시상식은 4월11일에 거행될 예정. 【AP】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DINNER·SHOW·DANCING

장학의 밤

□ 일시 : 1983년 2월 5일(토) 오후 6 시
□ 장소 : Downtown Holiday Inn (토론토 시청뒤) 89 Chestnut St.,Toronto
□ 회비 : 1 인당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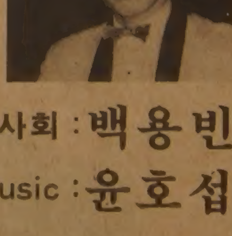
카나다 한인장학재단
☎ : 533-7923 · 278-9886

초대의 말씀

구정을 앞두고
2월의 첫 주말을
즐거운 쑈
경쾌한 뮤직
푸짐한 경품이 있는
「장학의 밤」에서 보냅시다
그리고
그날 쓰시는 당신의
귀한 돈의 절반을
이 땅의 젊은 학도와
고국의 가난한 학생의
면학을 위해서 쓰십시다.
이사장 강 공 선

▶팝송 히트 가수 장 미 라

▶"38선의 밤"의 주인공 최 갑석



▶노래와 코메디 양 철

■사회 : 백용빈
■Dinner Music : 윤호섭
■4인조 라이브밴드

Bass	정철하
Drum	이계민
Organ	김종덕
Guitar	신영하

□ 장학금으로 도와주신 분 □

실업인협회	$500
주식회사 신의상사	$300
조흥은행 이원순소장	$200
이영철 회계사무소	$100
칠성인쇄소	$100
Academy T.V. 김정운씨	$100
Roger's Garage 변달원씨	$100
Park Avenue Academy 이춘호씨	$100
하트빈한약방	$100
황용현부동산 임윤식씨	$100
심용웅씨	$100
윤중태치과	$100
블루어안경	$50
Oriental Bazaar 장해웅씨	$50
아세아한약방	$50
소계(1월15일 현재)	$2,650

□ 경품으로 도와주신 분 □

여우목도리($600상당)	미도파백화점
영문타자기($300상당)	Skyway 김인환
민중신문영구구독권($250상당)	민중신문사
고급커튼($200상당)	Lucky Drapery
경품2점($200상당)	Bloor Hardware 변의섭
Indoor Golf 1년 Membership($150상당)	Munamy Trophy 이기훈
벽시계($100상당)	영리무역
경품1점($100상당)	Korea House
상품권($100상당)	North York Chev Olds.
경품1점($100상당)	O.K. Auto Body
코리안저널 2년구독권	Korean Journal
경품1점($50상당)	김종조종합보험
쌀 50lbs 2포	서울식품
소계(1월15일 현재)	$2,200상당

*접수되는대로 추가 발표

□ 장학금·경품·티켓문의 □

강공선 구상회 김무호 김병권 김병국 김창갑 김홍량 마보훈 문인식 박영재 박인순 박종수 배형도 서동준 오원균 오현구 유영갑 윤태순 이전길 이근우 이동일 이상남 이성욱 이양섭 이영일 이영현 이정우 이창화 임윤식 임철원 장추국 장한영 전윤식 정창헌 조병여 조한철 차선경 최동영 최복기 한상훈 한용식 황용현 (이사)

◇당일 수익금은 전액 장학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세금공제영수증을 우송해 드립니다.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겐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체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울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초 레스토랑
각종한식·중국식·양식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스카보로)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울식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여 행 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방관광여행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928-3335(B), 532-9581(R) 유 승 민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외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하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길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Minit-tune Gain gas station
We do all repairs ◉334 Dundas St. E. Mississauga
전화: (B)273-3920 (R)273-9821 이태경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퍼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광고문의 533-2361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완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육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육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최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메니져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여자 스토아헬퍼 구함
경험자 우대. 다운타운 지역.
전화 : 368-8834 (오전 11시반 이후)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함.
토·일요일은 자유. 월: $400.-
전화 : 499-5996 (저녁 6시이후) Mrs. 김

일본요리사 / 한국요리사 구함.
전화 : 923-3060 GRANADA 음식점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분 구함.
2살, 5살
전화 : 447-1460

토·일요일 주말헬퍼 구함.(Mac's Milk Store)
Eglinton East & Laird Dr.
전화 : 421-1089

도넛숍에서 저녁에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일 하실분 구함.
전화: 690-3920 (B), 491-8734(R) Mr. 김

출퇴근하시며 베이비씨터 하실 분.
전화: 665-9585 Mr. Lee(오후5시30분 이후)

초저녁 사무실청소 하실분.
전화: 368-8421

도넛숍 헬퍼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2-0634 Mrs. 김

경험 많은 여자캐쉬어 구함. 미시사가 지역.
오후5시~11시까지 하실분(토·일 포함)
전화 : 625-1620

출퇴근하실 베비씨터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266-6355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 국 일 보 광 고 부

구 직

템프로리 메니저자리 원함.
◉유경험자.
전화: 762-7004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칩(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등불토요학교. ◉757-7828(김지현)
지원자격: 5학년~10학년. 영어·수학·한국어 ◉UT재학생과
졸업생 장소: Midland Ave. Collegiate Ins.(에그린톤×미드랜드)

바이올린 레슨.
푸로페션얼. 개인지도. All Level.
전화: 233-4200 Mr. Wong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Van트럭 82년도 GMC 회색
3,000Km-실내장식 완비
전화: 749-9687 Mr. 조

'81년도 Capri 4기통 AM. FM카세트.
Automatic 추렌스미션. Power 브레이크. 가격: $5,300
전화 : 536-8262(6시 이후)

스카보로에 있는 Bakery 매매함.
경험없어도 할수 있음.
주매상 : $3,500 아스킹 : $59,000
가격에 모든 도구 포함돼 있음.
전화 : 881-5186

Oakville 버라이어티 가게 매매.
아스킹: $60,000(스탁 포함)
전화: 844-2950 로레인 또는 버니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아스킹: 2만+스탁. 렌트: 월 $625(가게와 2층 살림집)
1054 Gerrard St. E. 전화 : 469-3708

당구장 매매함.
비데오머신들과 스넥바 있음. 좋은 Plaza내.
전화 : 531-9216 (오후5시-밤12시) GEORGE

그로서리·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스킹: 3만6천+스탁.
전화: 820-7259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년매상: $107,000 Net Net Plus.
11개스토아 플라자내. 아스킹: $1,200,000.25%다운.

◉1,3에이커. 따로 떨어진 두빌딩.
빌딩안에 Becker's 스토아와 Self Serve 개스 스테이션이
있음. 아스킹: $380,000.년매상: $34,000.Net Net.
◉Yonge Street에
금방 완성된 플라자. 아스킹: $5,000,000.10% Return.
763-5555 Doris Burda
Cholkan Real Estate Ltd.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아파트를 구하고 계십니까?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
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
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여자 룸메이트 구함. 1 Bed Rm. 아파트
Finch & Bathurst
전화 : 630-7594(저녁 6시이후)

3베드룸이나 1베드룸 타운하우스 렌트
즉시 입주가능.
전화: 532-9581(저녁7시 이후)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사무실 렌트.
연락처: 535-6004. 535-8801

미도파2층 렌트.(현재 입주 가능) ◉사무실과 살림
동시에 할 수 있음. ◉1Bed Rm. 화장실·부엌·사무실2개.
전화: 536-1692

1Bed Rm. 렌트(여성에 한함)
월: $130. 위치: Lawrence & Midland
전화: 759-3794 Mrs. 리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핀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베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
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하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춘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기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퍼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김